朝鮮日報 夕刊 十八日(金)
本紙朝夕刊二十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民政有志代議士會 政黨更生策協議

解黨論까지나와五時間討論

革新政策 樹立論으로一致

【東京電話同盟】民政黨에서는 時局에鑑하야 政黨의再生更生에關하야 自由討議를行하기爲하야 十七日午後五時부터 東京會館에서 中堅幹部、小壯派를 網羅한有志代議士의懇談會를 열엇는데 有志五十餘名이出席하야 먼저前田、中島兩氏로부터 斡旋役員代表하야 政黨의 입으로 林內閣은崩壞되고 近衛內閣이 成立되며 政局은一時安定된觀이잇스나 現下政情에鑑하야 政黨으로內部를 改造刷新하고나아가서는 指導精神及政策에 對하야 再檢討를行하야 適切한革新政策樹立을 指示할 必要가잇스므로 腹藏업는 各自意見을開陳하여주기바란다

고 開會人事를述하고 西村丹治郞氏를 座長으로 推擧하야 席上赤田、末松、平川等諸氏로부터

我黨은 舊殼을脫却하야 門戶를開放하고 人材를 糾合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함에는 看板을 交換함도 亦是 不得已하다

고 門戶開放의必要를述하고 이에對하야 齋藤、手代木、一宮諸氏로부터

我黨은 諸國的信念下에 指導精神을 確立하고 國民을背景으로 鬪爭하여야한다

고 强調하고 中村(梅)氏는

軍部及 國民의 支持를 바든革新政策을 樹立함이 急務이다

고 高唱하고 뒤이여山本、俵、小山(谷)其他諸氏로부터 熱烈한 意見開陳이잇서 五時間에亘한激烈한 論戰이展開되엇는데 그結果 別로 具體的決議를 行하기까지에는 이르지못하엿스나 結局政黨의 內容을 改善、强化하야適切한 革新政策을速히樹立하야實現을期함이가장 急務이라는 意見一致를 보앗스므로 더욱繼續하야 이會合을 行하기로 하고 午後十時頃 散會하엿다 또 同日會合에잇서서는 政黨更生의必要에 關하야는 意見이一致하엿스나 그方法에關하야

요즘自進하야 解黨한後 民政黨이 新黨의母體가되여他諸勢力及 軍部와 提携하야 眞實로時代에 即한新黨을組織하야 非常時局打開를圖하라

고하는 新黨論과 이에對하야

新黨을組織하느니보다 此際眞實한 黨의指導精神을 確立하야 이에基한革新政策을 樹立하고 그實行을爲하야서는 苟且한 妥協을排하고 國民을背景으로 敢然히 싸우라

고하는 革新政策中心論이 相當히 强硬하게 主張되엿다 이러한政黨의 現狀으로부터 今後의 推移는 자못注目되다

政友會代行委員 鳩山氏突然外遊

政黨의現狀에不滿품고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內部騷擾인지? 更生인지? 政黨은 요즘梅雨의하날가티 沈鬱한 空氣에잡기여 憲政常道論을 力說强調하던 繁盛時代인 政黨의昔日을追慕하고잇다 政友會代行委員鳩山一郞氏는 政黨의現狀에對하야 沈鬱한 不滿을抱懷하고 漂然히外遊하게되엿다 同伴者는 政友會代議士 林讓治氏와 鳩山氏의 姪인 鳩山秀夫博士의令息 道夫氏(理化學研究所勤務)의 二人인데 七月下旬頃에 出發할려로 「유리스」를 經由로 「폴란드」의旅行豫定表가 겨우作成되엿다 그 「폴란드」는七月卄二日東京을出發하야 西伯利亞經由 八月四日 莫斯科 同七日 伯林에 到着하야 同地留學中인 長女 百合子孃과만나고 히틀러總統과도 會見할려인데 夏中은 스칸디나비아地方을見學 九月二日 巴里 羅馬 나폴리方面을도러 十一月에는 英國으로건너가 十二月에는 米國에가서 여기서 約一個月을지난後 翌年一月八日歸國하게될터이다 同氏가突然히 外遊하게된것은 政黨方面에 異常한센세이순을 捲起하엿는데 右에 對하야 鳩山氏는말하되

別로무거운 旅行은아니다 外遊記錄을읽다가 偶然생각된 것으로 한번가보고십기로 計劃한것이오 別다른기픈意味는 조금도업다 (寫眞은 鳩山氏)

皇太后陛下 植物園에行啓

【京都電話同盟】御滯洛中이압신 皇太后陛下께압서는 十八日 午前九時四十五分 京都皇宮御出門 略式自動車鹵簿로 京都植物園에 行啓하압시사 同五十六分 植物園 運動場에 着御 鈴木府知事의 御先導로 市內各公私立 高女生徒一萬七千餘名의 奉拜裡에 御座所에 入御 御少憩하압신後 運動場에 整列한 高女生이 奉唱하는 陛下 御歌『花스미레』를 드르시압시고 다음 府立 第一高女以下 十八校三千餘名의 一絲不亂한 合同體操、女子師範以下 十二校 一千二百名의 輕快한 行進遊戱를 御興기프압시게台覽하압시고 運動場을 北으로接한 植物園에 玉步를 옴기압시사 園內芝生에 奉拜하는 市內八十歲以上의 高齡者 一千五百名에게 御會釋을 賜하압시면서 여러가지 植物類를 台覽 高山植物園을 지나압시사 東山連峰을 御展望 鈴木知事로부터同園의 沿革其他를 御聽取하압시고 同十一時二十分 同園御發 同四十一分 上京區今出川烏丸에잇는華族會館 京都分館에 드리압시사 鷹司館長以下 在洛華族八十餘名의 奉迎을 바드압시며 一番御座所에入御 御晝餐을 마치시압신後 午後一時 二番講堂에서 中松齊藤伯、淸閑寺子爵等 十二名의 御前揮毫를 台覽하압시고 廣室에서 大禮御調度品의 模型陳列을 御巡覽、御覽하시와 舘內球場에서 古式에則한 蹴鞠를 御熱心 台覽하압시엿다 그래서 午後一時五十分에는 다시 廣室에서 茂山社中의 狂言二番을台覽 午後四時十分 御泊所 京都皇宮에 還御하압시엿다

西人民戰線의 一中心빌바오市의激戰의一場面 (激戰을目前으로 집안에서 防備하는 民兵 아래圓內는 民兵의 차림이다)

게·페·우越境하야 日本官憲을狙擊

日隈巡査應戰中戰死

【羅南電話同盟】十六日午後四時半頃 咸北龍峴駐在所의 岩本、日隈의兩巡査와 一憲兵上等兵이豆滿江을건너 對岸의 滿洲國領으로부터 國境線에對하야 地形을調査中이든바 突然蘇聯게·페·우의 一隊가 不法하게도 國境을突破하야 侵入하야와서 射擊을함으로 日本側도 即時應戰하야 敵을擊退하엿는데 이번交戰에서 日隈巡査는 名譽의戰死를 遂하엿다

蘇兵不法射擊에對해 深堀朝鮮軍參謀談

十六日午後四時半頃龍峴駐在所 巡査二名과 憲兵一名이 圖們江을건너 對岸의日滿蘇國境附近을 巡察中이든바 突然附近滿人家屋內에 潛伏中이엿든게·페·우 에게 猛烈한 射擊을바덧스므로 即時應戰하엿스나 엇쨋던 그들은미리潛伏하야 地의利를엇고 猛射함으로 할수업시 事態의惡化를 念慮하고 歸來하엿는데 警官一名은 戰死와가티 負傷拉致되엿다 軍에서는 그間事情을 詳細히 取調한바 게·페·우는當時越境하야 滿領內에 侵入하야地形調査中 突然日滿巡察이 接近하자 가만히潛伏하야 不法하게도 日本側에게 射擊을加한듯하다 同所國境은 琿春界約에依하야 決定된 國境線인것은 明瞭할뿐아니라 蘇聯은昨夏同國境線에 鐵條網을 構築하엿스므로 日本側이 國境線을侵犯하엿다는것은根據가업는바 如斯히 생각하면蘇聯側의 非法은明瞭하다 이와가튼 不詳事가發生하는 原因은 國境滯在한 게·페·우가 大端히 日本側을 恐怖하고잇는것과 다른하나는 赤軍部內의 動搖로부터오는 神經過敏의表現이라고 觀測된다 即國境滯在赤軍의 軍規가 低級이오 近時 國內의 紛擾가 相當히 混亂을示하야 國際道德等을생각하지못한다 今月初에는 西水羅에 蘇聯漁船이 漂流하여 와서 取調하여보니 乘組員의漁夫四人이모두 海參威郊外의 호라라야레치카 强制勞働收容所의囚人으로 即囚人에게漁業을 시킨것이다 그漁船에故障이 이러낫든데다가 그들은 漁船의操縱方法을 全然알지못하엿기때문에 漂流한것이다 囚人을使用하야 外國의近海에서 漁撈를시키는것은常識으로는 判斷할수업다 하여튼 今次蘇聯邦內의 混沌相과前述한것가튼 國境方面에잇는官憲의態度가 모도非常識으로近年그宣傳을 그대로듯는 中國이나 或은 國境附近의 無智한朝滿匪賊等에對하야는 오히려 一掬의 可憐한感을禁치못하는바이다

駐京蘇總領事館에 外事課에서抗議

十六日午後四時半頃 咸北對岸蘇滿國境附近에서 蘇聯側게·페·우가國境線을 突破하고 侵入하야射擊을 開始하야 應戰中 咸北警察官한名이 戰死한事件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十八日午前十一時에 外事課室田事務官을 貞洞잇는 쏘베트總領事館으로 訪問하게하야 게·페·우가越境하야 不法射擊한結果警察官의 死亡을내인데 對하야嚴重한 抗議를하엿다 即

一、國境은 從來와가티 不分明하다고 할곳도아니요 鐵條網도잇는곳이오

一、普通사람도 아니고 警察官에 對하야 射擊을 한點

等을드러 抗議하는同時에 屍體의引渡를 要求하엿다 總領事는 아직 어떤內容인것인지 公式報道에 接하지못하엿스나 그런事態에 잇섯든것은 遺憾이라는뜻을 말하고 곳中央에 報告할뜻을 말하엿다

八面鋒

◇朝鮮서 給料나 勞賃을 밧고사는 勤勞階級이 百十二萬人인데、

◇給料生活者는 廿二萬、日傭勞働者는 五十五萬、其他勞働者는 三十四萬名이라고。

◇人口 一千三百萬中 女子、學生、幼年、老人을 除한다고해도 百十二萬이란 數字는 아직 資本主義化 안한것을 證明。

◇資本主義化가 낫브나 封建的農村經濟가 何하나 하는것이 發達한 今日의 經濟組織에서 論議되는 모양인데、

◇要는 個人이 發達한 資本主義時代에 더 살기 困難한 때문이 아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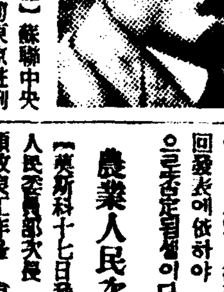
◇그러므로 資本主義를 是正하야 國民生活安定을 圖하자고 軍部가 力說하는것도 一理 잇는일。

◇問題만튼 東一銀行은 成氏一派의 總退却、朝鮮銀行 勢力의 總占領으로 解決되는 셈。

◇이것도 自己는 잘 하는데 못되는 일일가。

유前駐日大使는 駐獨大使로就任

逮捕되엿다는說은虛報



【莫斯科十七日發同盟】蘇聯中央執行委員會幹部會는 前東京駐箚大使유레네프氏를 새로伯林駐箚大使로任命하엿다는旨를 十七日타스通信社를通하야 發表하엿다

유레네프大使의 逮捕說은 海外에서 頻繁히流布되고잇스나 今回發表에依하야 이浮說은 正式으로否定된셈이다 (寫眞은 유氏)

農業人民次長等罷免

【莫斯科十七日發同盟】蘇聯農業人民委員部次長 쓰이루코氏는 肉類改良工作을 怠業하엿다는 嫌疑로 今回 突然 罷免되엿다 白露共和國農業人民委員 베네코氏도 亦是 가튼 理由로 罷免된模樣인데 農業人民委員部 機關紙『社會主義農業』紙는 兩人의 行動을 작구 非難하고잇다

天津駐在蘇領事被逮

【天津十七日發同盟】當地某方面에의情報에依하면 目下歸國中인 天津駐在蘇聯邦總領事 빗쓰나氏도 今次蘇聯陰謀事件에 關聯하야 莫斯科에서逮捕되엿다고 傳한다

慎重을期하야 政務官決定遲延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政務官問題에對하야는 大體로 이를復活하기로 決定하고 그人選에對하야 眞實로時代를認識하는有爲의 人物을 登用시킬方針下에자못愼重을期하고잇는데 風見書記官長은 近衛首相과 協議한 結果 閣議에서 方針을 決定하기前에 以上諸點에關하야 閣僚間의 意見을 綜合하야 그紛糾를 防止하기로하고 過般來各閣僚間을 奔走하더니 十七日에는 中島鐵相을 訪問하고 그意見을 徵한바잇섯는데 閣內의 大勢는大體로政務官制에對하야 存置論에 기우러젓다 그러나 單純히 從來와가튼 議會對策을爲하야 政務官을 設置함은 意味가업슴으로眞實로 國政에 善處할수잇도록本制度의 活用을 考究하는 同時에 이方針에 則하야 人選에着手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함으로 結局人選은 諸般事情을참작한後 行하지안흐면 오히려近衛內閣에 好感을가지고잇는 政民兩黨을 刺戟하야 紛糾를 招來하게될터이므로 愼重히取扱하게되여 十八日閣議에는同問題는 上程치안케되엿는데 政府는이와가튼 措置方針을 取하고잇슴으로 最後的決定은 結局二十五日閣議以後로될豫定이다

발렌샤政廳의 巡洋艦爆發

百數十名死傷

【발렌샤十七日發同盟】발렌샤政府所屬巡洋艦 하이메·프리메로號는地中海岸 카르타헤나港에서修理中이든바 十七日午後突然 艦內에 大爆發이 이러나 十八名은 即死하고 百餘名은 負傷을 當하엿다 그런데 아직도 그原因은 不明이다

昭和製鋼所見學하고 一路新京에向發

本社産業視察團消息

【湯崗子에서本社特派員韓濟容急電】十六日夜 旅順을出發한 本社産業視察團一行은 汽車속에서 시달리는 하로밤을지내고 十七日早朝 鞍山에 到着하야 爲先 鞍山호텔에서 길겁게 朝飯을 친後 九州八幡에 다음가는 東洋有數한 昭和製鋼所를 見學하게되엿다 鞍山製鋼所는有名한 山式精鑛方法에 依한大規模의製鐵所인데 會社의案內로製鐵過程을 見學한 視察團一行은 全部가 近代科學의偉力에 嘆服하엿다 視察團一行은 鞍山製鋼所의見學에依하야 北中과 南滿洲의視察을마치게되니 이제는觀察의 半을지나게되엿는데 只今까지 隊員中李秦楨氏가家事形便으로天津으로부터 歸國한外 全員이無事하게 視察을마치게되엿다 視察團一行은 北中及南滿洲의 塵埃를씻처 버리고 하로밤의 단꿈을꾸려고 午後二時湯崗子에 드러가 南滿洲에 第一가는 이溫泉에서 길거운 一夜를보내고 十八日에는아침九時二十九分湯崗子發列車로 一路新京으로 向하게되엿다

西班牙兩政權 交戰團體로承認?

【巴里十六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는 도이칠란드號爆擊事件을 契機로 發展한 非常時局에 對하야 極力善後處置에 邁進한結果 드듸어 英佛獨伊四國協定案確立에 成功하야 獨伊兩國政府도 十六日 不正式으로 干涉委員會 및 國際監視隊에 復歸하엿다 一方 西班牙叛軍政權의 不明確으로 이러나는 여러가지 困難에 對하야 此際 프랑코政權을 交戰團體로서의 地位를 承認하자는 議가 佛國政府部內에 相當히 움지기고잇는 模樣이다 英佛國內의 輿論中에는 벌서부터 西班牙兩交戰團體를 承認하야 內亂으로부터 이러나는 國際上論議、財政的責任의 取扱을 明確히 할것이라는 要求가 表明되엿스므로 不遠間 交戰團體로서 承認될 模樣이다

松平伯議長受諾

副議長으로서는佐佐木侯

貴族院正副議長決定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特別議會도 切迫되엿스므로 貴族院議長의 後任決定을 急히하고저 貴族院各派領袖와 連絡을取하야 人選에着手한結果 最適任者로서 現副議長松平賴壽伯을 昇格시키기로 決定하고 十六日官邸에서 松平伯과會見하야 議長就任을懇請한바 松平伯은此際貴族院內에서 가장聲望이잇는 細川侯의議長就任이야말로 가장適當하다고 생각함으로 自己로서는 辭退할밧게업다고 答하엿슴으로 首相은 그러면 細川侯와交涉한後 다시懇請하다고하고 即時細川侯에 交涉하야 細川侯는 十七日夜 近衛首相에對하야 固疾의神經病을 理由로 正式으로 議長 就任을 拒絕함으로 首相은 輕井澤에잇는松平伯에 細川侯와의 交涉顚末을 述하고 極力議長就任을 要望한結果 松平伯도 드듸여 首相의 要請을受諾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副議長에는 松平伯과도 協議한後 佐佐木行忠侯를 推薦하기로 決定하고 電話로交涉한結果 同侯의承認을 어덧스므로 貴族院正副議長은 內閣으로부터 上奏한後如左히 勅命하게되엿다

正二位勳二等 伯爵松平賴壽 貴族院令第十一條에依하야 貴族院議長으로任함

從三位勳四等 侯爵佐佐木行忠 貴族院令第十一條에依하야 貴族院副議長을任함

狹心症으로卒倒했든 汪精衛氏小康

【南京十七日發同盟】狹心症의發作으로 卒倒한 汪精衛氏는 前日부터 膽石病의 固疾이잇섯고또 先年負傷한後 아직 全快치못하엿슴으로 그經過가 念慮되던바 急報에依하야 달려온 醫師의强心劑의注射 其他 應急手當에依하야 小康되여 午後三時 安眠中인데 大體로 危險狀態를 脫却한模樣이다

人事·集會

▲古川圖書課長 全北全南警察署長會議臨席次出張中 十七日午前七時十二分歸任 同日午後七時四十五分京城驛發新義州에出張 平北警察署長會議에 臨席 二十四日歸任豫定

▲金昌鈞氏(總督府囑託) 新任人事次來社

好職業
失敗업고、不景氣모르고、버리가크다 本業副業으로 男女老小不問、自宅에서 손쉽게할수잇는일 年中無休、說明書及見本送代進呈 奈良縣 郡 山町 富榮社

小型國産機の最高權威
特許アクロ式
クボタ ディーゼル機關
株式會社久保田鐵工所製

(カタログ進呈)
總發賣元 合名會社杉山商店京城支店

耳 人工鼓膜으로
鼓膜破裂 「귀질알는사람은念慮無用」

속병약
可驚할神效藥! サンセイ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二二九

清血排毒特效 海草精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失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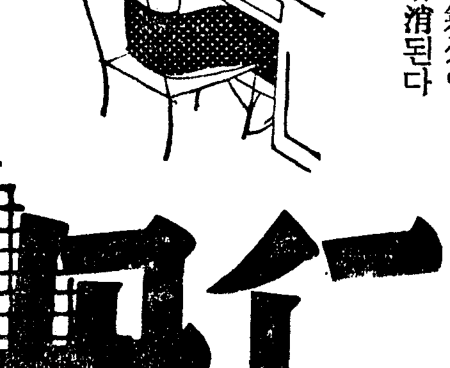
朝報案內
音樂

外務社員招聘

藥房讓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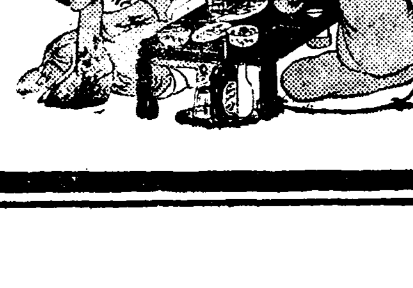
自動車 運轉練習

昭和の常識
(녀름철의健康心得)
頭痛이 날때에
지튼녀름에 頭痛으로 苦生하는사람이 만타 仁丹을 먹기만하면 아조씨슨듯 업서저 爽快한氣分이 나며頭痛도直時解消된다



仁丹
本社 平壤支局 電話一〇四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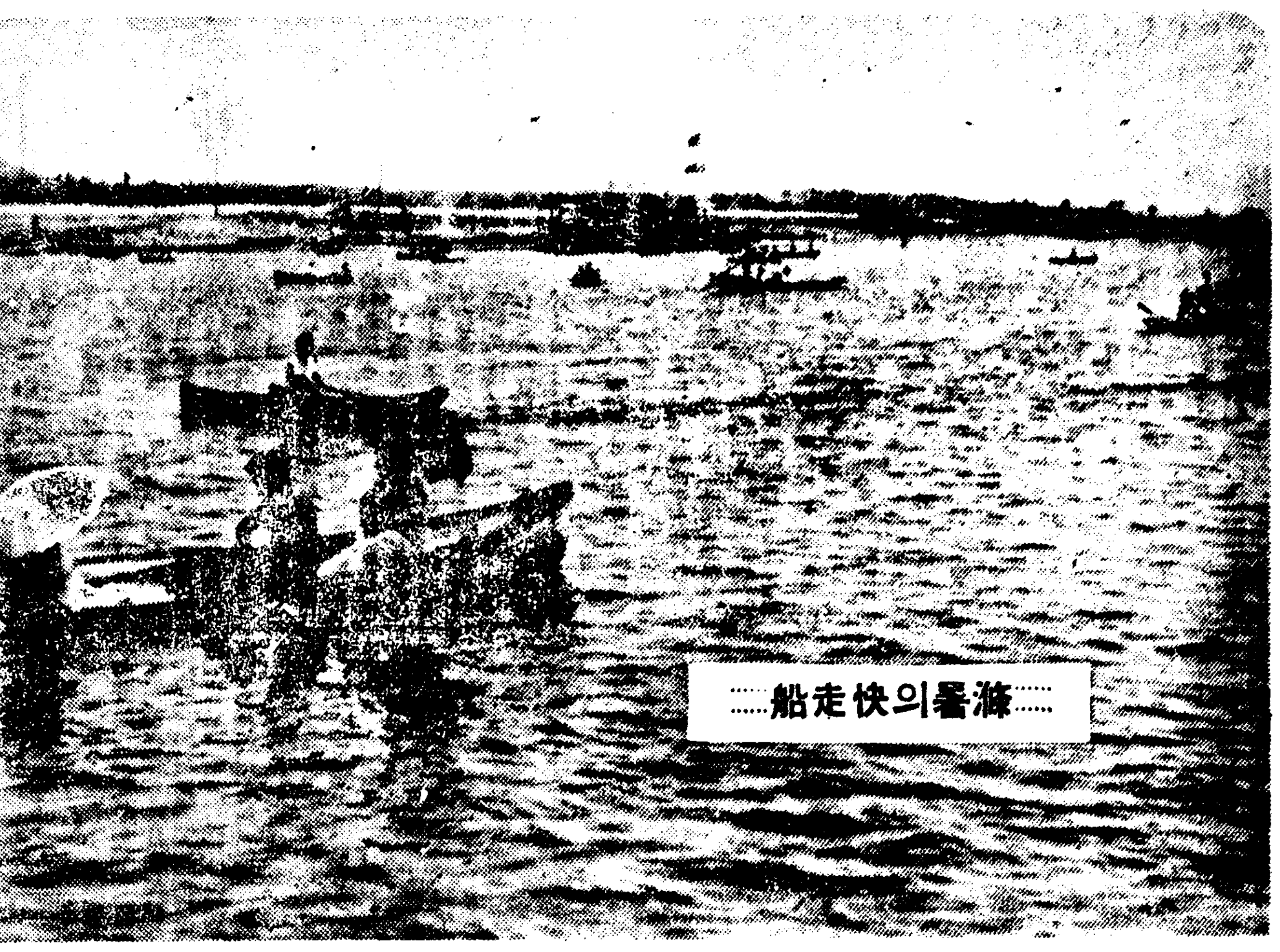
술과비-루를 安心하고마신다!
술과비-루를마시자마자 泄瀉를하는사람이 퍽만타。
지금까지 胃腸에나뿌다고 斷念을하엿섯지만……。
그러나安心하여라
新發見한胃腸藥トモサン은 일즉이刺戟물質을 吸着하야大便中으로 내보냄으로 惡醉、宿醉가되지안음은勿論、泄瀉도안한다。
다른原因으로泄瀉를하는境遇에라도 이것을 먹으면早히恢復이되여진다고好評이다。
急性慢性의泄瀉 가슴아리宿醉에
評判인新胃腸藥!
トモサン



のみやすく少量できく 價格頗る低廉!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友田合資會社

明治座
19日ヨリ
目擊者
先づ見よ! 而して批判を待つ!
目擊者を探す三人の男! 血潮の中に咲く愛の花! 高雅な詩情で包む大社會劇!

裸の人


海水浴場의快走船

港灣修築四千萬圓
橋梁新設三千萬圓
多獅島에도擴張工事
明年度土木豫算七千四百萬圓臺
資源開發에따르는産業施設

명년도총독부토목예산중 남총독(南總督)의 오대정강(政綱)의 하나인 산업개발 즉자원(資源)개발에따르는 항만수축 도로교량신설과개수 어항개수등에 제일중요한것인데 항만오개소수축비가 약사천만원 도로교량비가 약삼천만원 어항십개소개수비가 약사백만원으로 이것은순전히 자원개발에 중요사명을가진 수륙교통운반의 시설이다 칠중평안북도다사도(平北多獅島)가튼것은 명년부터 만주국에서 압록강(鴨綠江)연안 국경을 관통하는 철도가 새로이 부설하게되는동시에 야구(野口)기타 대재벌의 손으로되는 압록강의 대수력발전이 실현됨에따라 막대한 예산으로 굉장한 확장시설을 할모양인데 그내용은 삭주구녕포(朔州九寧浦) 만포진(滿浦鎭) 혜산진(惠山鎭)등 세곳에서 만철본선으로 접속되는 조만산업개발련락철도를 만주국에서 명년도부터 부설공사에 착수할터인데 이들철도부설과함께 압록강수력발전으로인하야 산출되는 각종 공업품을 원활히반출함에는 다사도를 대규모로 확장시설지안코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苟生을刑務所에 放火한不具靑年
安岩町放火犯逮捕

생존경쟁에 패부된 불구의청춘을 형무소에서나 보낼랴고방화를한 가련한청년이잇다 십팔일새벽네시십분경 부내안암정(安岩町)백이십구번지 무당성수옥(成壽玉)(五〇)의 초가에서 불이나 이웃신권우(申權雨)의집에연소되어 일시는 대소동이낫섯스나 소방대의활동으로 전기두집을반소하고 동사십분에불을껏다 동대문서에서는 그원인에 수상한점이잇서 엄중조사한결과 드디여 방화로 단정하고 범인을엄탐한결과 동일아침 여덟시경에 룡두정(龍頭町)부근에서 거지가튼자를 혐의자로 인치취조한결과 그범행전부를 자백하엿다 이자는 충남청양군 비봉면신원리(靑陽郡飛鳳面新院里)출생 복기석(卜基錫)(二三)으로 그는작년구월 경기도포천(抱川)군내모광산에서 인부로잇다가 화약폭발에실명(失明)을하고 경성제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바더 일시는 효과를엇고 인천에 버리를구하려갓스나 마음대로 되지안허지난열하로날다시서울로 도라왓다 그러나이곳에도 직업을엇고상처는다시악화할뿐으로 그는현세에서완전히패부된 감정으로드디여 형무소행을 결심하고 십칠일밤일곱시 방화하기 제일쉬운초가집이 만흔곳을차저 안암정으로가서 뒤산속에서 한참자고깨여나 이와가티 무서운범행을한 것을 자백하엿다

昨年中鐵道建設費
總額三千萬圓
中央線爲始各線에

십칠일에 철도국에서 발표한 소화십일년도의 결산을보면 세출림시부(歲出臨時部)에서 철도 건설(建設)및 개량비(改良費)로 삼천사백사십이만사천어원을썻는데 그가운데서 건설비로 일천구백구십사만삼천칠백구십칠원 삼십삼전과 개량비로 일천사백사십칠만칠백이십오원 이십칠전을썻다 건설비는

◆만포선(滿浦線)에 륙백칠십여만원
◆평원선(平元線)에 일백二十오만원
◆혜산선(惠山線)에 일백이십사만원
◆동해선(東海線)에 일백삼십오만여원
◆경전선(慶全線)에 이백륙십구만여원
◆중앙선(中央線)에 삼백팔십륙만여원
◆차량비(車輛費)에 일백사십삼만여원

을 썻스며 개량비는기설선로(旣設線路)의 정거장등의 개량과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의 광궤개축공사(廣軌改築工事)와 차량증비(車輛增備)등에썻다한다 또 이밧게 북선개척 사업비(北鮮開拓事業費)로 즉 백암(白岩)무산(茂山)사이의 백무선(白茂線)철도 건설비로 일백이십오만사백칠원을 썻다한다

孫婦出奔을 悲觀코自殺

부외독도면광장리(廣壯里)삼백이십칠번지 원룡식(元龍植)의어머니 김성옥(金盛玉)(六二)이란로파는여생을바라고잇든단하나인손자를얼마전에죽여버려비탄의 눈물이 채마르기도전에 그의처가고독을 못이겻든지 지난칠일집을 나간채 도라오지안는것을비관하다못해 십칠일밤에 양재물을만히마시고 자살을하엿다

運動競技

京畿道陸上協會主催
中等學年別陸上
十五校六百八十二名參加
二十日 京城運動場

京畿道陸上競技協會에서는 特히 國民體育向上을 目的으로 運動競技의 普遍化에 注力하기로 되여 오는二十日 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京畿道內 中等學校 學年別 陸上競技對抗大會를 開催할터이라는바 이날의出場者는 養正, 培材, 普成, 二高, 徽文, 中央, 遞商, 京師, 一高, 仁商, 京商, 仁中, 京工, 龍中, 昭和工科等 十五個校의 六百八十二名에 達하야 延人員數는實로 二千名이나되는 盛況을 이루고잇는데 各學校別에依한 優勝校를 決定할뿐이고 總得點으로 全體의 優勝校를 選定치안키로 되엿다한다 그리고 同協會에서는 一步나아가 競技檢査制度의實施를 計畫하고 年齡別과 體別에依하야 各競技의標準을定하고 이에 第一合格者 第二合格者를 選拔하기로 되엇는데 먼저 京畿道內靑年團員으로부터實施할터이라한다

京城水上代表
第一次豫選會

京城水泳同友會에서는 來八月初旬에열릴 第一回京平水上對抗戰에出場할 全京城代表選手를選拔코저 二十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풀에서 第一次豫選會를열기로되엿다는데 在京選手들의多數來參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都市野球朝鮮豫選

大每主催의 第十一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의 朝鮮代表를決定할 朝鮮第一次豫選會는 來七月 二, 三, 四의 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 決定되엇는데 이豫選에 出戰할팀은 西朝鮮의 平實, 中部全京城, 南朝鮮의 釜鐵等이며 湖南地方과 北朝鮮은 아직未定이라한다

올림픽競技場
建設費三百七十萬圓

【東京電話同盟】東京市로부터 提出된 神宮競技場改造案의 大綱은 다음과가다 ▲建築費=三百七十萬圓▲破壞費=二十萬圓▲競技場길이二百十八米 同幅百十五米▲맨스탠드(五千坪)=高이七十尺 側幅五十米▲잔디롤칸스탠드(三千坪)下半部는콩크리ー트로의 永久施設로함 그리고 여기에다놉히四米의木造스탠드를假設함

아마拳鬪延期

全朝鮮아마튜어拳鬪協會主催와 東亞日報後援의 아마튜어拳鬪優勝爭奪戰은 六月二十五, 六日에 行할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主催側의事情으로 七月一日과 三日로延期케되엿다는데 申請期도六月三十一日까지라한다

地金六萬五千圓 密輸한德力店員
一黨檢擧·主犯은逃走

【新義州】경성제일의지금상이경성부본정(本町) 덕력(德力)상점점원 김로완(金魯完)(?)선천군선천읍(宣川邑) 리용건(李傭健)(?)은 공모하고 작년오월부터 경성(京城)과 벽동(碧潼)방면으로부터 금지금(金地金)륙만오천원어치를안동현에밀수출한사실이발각되여 방금신의주경찰서에서 일단검거취조중인데 그중에주범으로 되여잇는 김로완(金魯完)은 경찰의검거망을버서나 도주하엿슴으로 사방에수배하고 엄중수사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北滿洲와 蒙疆附近 其他에잇스나 그勢는 弱하다 高氣壓은 本州로부터 日本海를 지나 半島에 퍼지고 北滿洲는 흐리고 南滿洲와 朝鮮은 개이고 西日本內地도 개이며 其他는 흐리겟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은 개엿다 잠간흐리며 京城소品도갓다

昨日最高 二八度四
同 最低 一四度四
今朝最低 一五度一
今日正午 二八度

前行電車에追突
乘客十名이負傷
端午節의興奮을抹殺시킨 箕林里停留場附近의慘變

【平壤支局電話】 단오절의 흥분을 말살시킨 가두의 교통참변이 십칠일오후 한시쯤에 평양부기림리(箕林里)칠성문(七星門)밧 정류장부근에서 승객을 만재한 부영전차이십륙호에 뒤미처쪼차오든 십삼호전차가 추돌되여승객중의 리기화(李基華)고영실(高永實)외에 여덟명이 치료십일가을요하는 부상을 당하야즉시 부근평화의원(平和醫院)에입원가료중이다 그리고 이십륙호 전차와십삼호 전차는 뒤와 압피파손되엿다

寫眞機窃取犯逮捕

십팔일오전열시반경 파고다공원안에서 경성부사회과기수 좌등(佐藤)(?)씨가 시가구십원짜리 사진기를절취당하엿다 신고를바든 종로서원이 현장부근에서 이십분만에 초스피드적으로 범인을검거하엿는데 그는 안국정(安國町)사십일번지 리기남(李基男)(?)(假名)으로 활동사진에 미처서 한범행이라고자백하엿다

野球리ー그終幕戰

京城實業野球聯盟春季리ー그戰은 來二十日의 鐵道對府廳決勝戰으로서 閉幕할터인데 事情에依하야 이試合을中止하고 同日午後二時부터京城球場에서 今『씨ー즌』의優勝팀 京電의 優勝杯授與式을마치고 繼續하야 都市對抗朝鮮豫選에 中部代表로서 出場하는 全京城軍對殘留聯合軍과의試合을行하야 春期『씨ー즌』의 幕을 다치기로되엿다 그리고都市對抗 朝鮮豫選에臨할 全京城軍은 京電팀을主體로하야 他팀으로는다음과가튼 諸選手를 參加編成할터이라한다 ▲藤井 矢野(殖信) 森田 山中(鐵道) 保田(殖銀)

門鐵野球來征

都市對抗野球의覇者 門鐵팀을마지하야來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龍山球場에서 鐵道軍과 第一回戰을行하고 二十七日에는 京城運動場에서午後一時에對鐵道二回戰, 同午後四時에는全京城과對戰할터이라한다

信號업는"降雨消息"
二,三日內에驟雨
旱魃은依然繼續
仁川觀測所氣象打診

【仁川】남북각지방으로부터 한발의 소동이일허나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는 아라까운소식조차전하야 주고잇스나 하날노피 흰구름만 떠다니고 날새조차선선하야 물에대한 소동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펼처지고잇다 애태우는 창공의소치를 인천관측소에 무른바 태평양(太平洋)상에 세력이왕성한 칠백오십밀"미리"의 고기압이 펼처잇고 칠백오십"미리"의 저기압이 대만(臺灣)과 만주(滿洲)에잇서 정동진(正東進)하고잇서 조선에는 저기압이접근할여유가어려워 기압(氣壓)조차 평년에비하야 약상도나아분평년으로 당분간은 비를바라기망이엇다하며 엇지로라도 비한다면 이삼일내에 시원치안흔 "소낙비"는 잇슬듯하다하나 이 얼마나안타까운소식이랴

本夫를打殺한後 斷胴하야暗葬
前代未聞의姦夫婦에對하야
覆審서도死刑求刑

간부부가 꾸모하야 본부를때려죽인후 시체를 처치하기곤난하매 톱으로 시체를 목과허리와다리등 세토막으로 잘라서아궁이에다 태우다가 잘타지안호매그것을갖다 후미진곳에 무든혐의로 살인, 사체손괴유기(死體損壞遺棄) 죄에걸리여 일심에서사형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한충북영동군 심천면 금정리(永同郡深川面錦汀里) 간부(姦婦)박순옥(朴順玉)(三五)과 간부 민준호(閔俊鎬)(三六)두명에 관한복심공판은십팔일 오후두시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교본(橋本)검사 관여미테열리엇다 피고박순옥의 남편 배사복(裵士福)은 십여년전부터 민준호의종중산직이 노릇을 하여왓는데 이약점을타서 피고민준호는 배사복의안해 박순옥에게자기의요구를듯지 안흐면 산직이를 떼겟다고위협하야 비밀리에소화구년삼월부터 불의의 관계를매저왓다 그해오월에 본부배사복은 눈치를채이고 그의안해에게 민준호와의관계를 끈흐라고 꾸지저왓스나 그들간부부두명은 역시계속하여왓다 이리하야배사복은 그해구월에 산직이를내노코 다른곳으로 멀리이사를가려고하든중 간부부는 서로떠러질것을 원통히생각하야 서로피하고 본부를죽일기회를엿보고잇슬때마침 구월십사일배사복이가 병으로눕게되엿다 민준호는 위문가는체하고가서 빨래방망이로 배사복을 별안간때려죽인후 박순옥과 시체를처치할방법을 의론한끄테 톱으로 세토막으로 잘러서 아궁이에태우려하엿스나 잘타지안한매 그근처산기슭에 갓다무덧다는것으로 심리가끗난후 검사는 역시사형을 구형하엿다

少女一名을 又救助

(사진은 구조된소녀)

루보=시내서대문서 사법계에 붓잡혀서 방금취조를밧고잇는소녀유괴마녀 문지련(文智蓮)(三二)이가 유괴한 소녀다섯명중 두명만판명되엿스나 나머지세명이누구에게 팔렷는지 알수업서형사대가 계속하야 활동하던중십팔일에이르러 또한명의 소녀가들어나게되엿다 즉 인천부주안면(仁川府朱安面)전 농원주 중국인 우경서(于鏡書)(?)에게 네살먹은 게집아이한명이 팔려잇는것이 판명되여 십팔일서대문서원이 그중국인과 어린애를경찰서로 데려왓다는데 전기문지련과 중국인을엄중 취조하엿스나 그어린애는전주(全州)어느길가에서 꾀여온사실뿐으로누구의딸인지 전연알수업서 방금전주서로 조회중이라고한다

殺人안침쟁이

파주군탄현면법흥리(坡州郡炭縣面法興里) 리병만(李炳萬)(?)은 이웃에사는 김상득(金相得)의장남 문진(文鎭)(六)이가 폐렴(肺炎)에들어 잇는것을 십오일오전여덟시에 침을놀면서도 업슴에불구하고 그를고친다고 배에다 두치가량되는 침을 나노앗는데 그후로부터 병세가 갑작히변하야 그날밤에 사망하고말엇다 이사실을안 파주경찰서에서는 그모를 방금 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다

瀆職警官에게 禁錮六個月求刑
被告는事實을否認

취조를밧은 사람들세명에게불법체포감금상해(不法逮捕監禁傷害)등죄명으로 고발되야 검사국의 취조을바든결과 독직상해죄로 공판에회부된 부내룡산경찰서공덕정주재소근무 오재원(吳在元)(?)에관한 공판은 십팔일경성지방법원에서 단독부 고목(高木)판사심리 근등(近藤)검사관여미테 열리엇다 사건의내용은 피고오순사가 지난일월이십오일현저정(峴底町)사십오번지홍규표(洪奎杓)로부터 아현정(阿峴町)사백오십칠번지 조근묵(曺謹默)정명환(井明煥)김영삼(金永三)등세명이 자기가 서(徐)모에게 맷긴 장식일백륙십원어치를 어데다 파러서 횡령하고 갑지안는다는 말을듯고 전기조근묵등 세명을 주재소로 불러다가 취조를할때에 그런사실이 업다고 부인하여도 부당히 그들을 변소에 감금하며 뺨을때리고 하야 상처를내엿다는것인데 피고는 판사의사실심리에대하야 그러케때린일이업다고극력부인하엿다 그러나 심리가끗난후 검사는 금고(禁錮)륙월을 구형하엿는데 언도는 오는 이십일일에내리기로되엿다

學生正服입고 窃盜行脚
西署逮捕 少年窃盜團

중학생정복을채린 네명의 소년절도단이 시내서대문서에 일망타진되엿다 그들절도단은 수원(水原)출생의 리홍식(李洪植)(一八)과 인천(仁川)출생의 김구현(金九鉉)(?)등네명으로 모두 전과이범인데 시내의당당한사립학교정복을차리고 시내각귀금속상점, 시계점, 백화점에 출입하야 만흔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칠월오전네시경 시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이백?십삼번지 박룡진(朴龍辰)시계점에 침입하야 금시계은시계 여섯개와 홍진을비롯하야 그전수와피해액이 상당한다수에 달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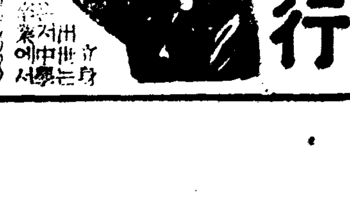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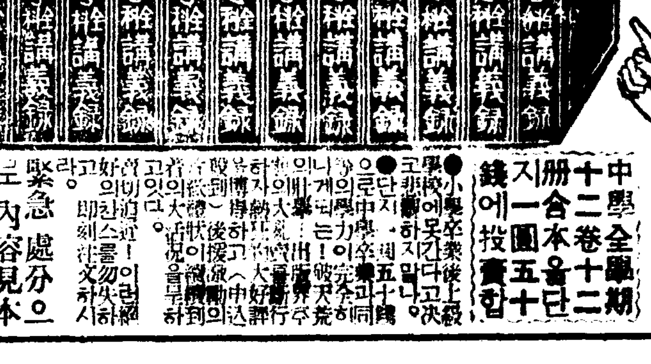
맛잇는 マラソン王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의약 정분만만 히든대신 발명한약
사람은 보혈보양하야 정력이 넉넉하여야 원기가왕성하고 생활이 새로워진다
가이자ー는신체의쇠약한 조직을 다시 소생시키는 보혈보양의 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하고 정력을 씩씩하게하는명약이다

페병 부족증 늑막염에 나오세ー NAOPER 가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 발명약제 가만히드렷습니다
페병은 불치의난병으로일명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대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 입때까지는 그부의균만죽이라고드렷스나 서는 절대로안되는다 살균도될 요하나한편으로 몸도보하고잡식제지(包圍制止)하는 부분을 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나오세ー는 제일약과음식과일광욕과산소로법카루카료법등이잇스나마음대로안되엿다

림질 대하증냉병엔 구로베루 KUROBER 이제일
전세계에서 유명한 독일의 새로운 발명약
하증 남녀냉병 오줌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 효과가 빠르고 별별약을 써도무효하던 고통하는분은 안심하시고 제일면 쓰시오 구로베루 Kurober

매독엔 프로ー다ー PROTER 가제일
효력최대 상구감안 나고병독을박멸한다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이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대 개사루바루산주사며대하여겨우 일시적으로 완치가안되고다시 도지게되니 후환이큰 불완전한것이 증명된다 그래서이불완전한점을 업새기위하야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단기간에 효력을 볼수잇는매독약 프로ー다ー(PROTER)를대발명하엿다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엇더한 책임이든지 짐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册合本定價十二圓인데今回整理로申込次第荷造郵費共一錢에投賣함(但只一圓五十錢)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册 一合本을 册一圓五十錢에投賣함
緊急處分으로 內容見本은 업다。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振替大阪五六〇一四 現代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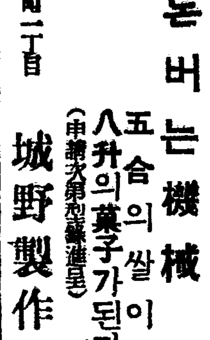
어린이補藥 第一兒寶 營養·治病·豫防에三大作用 간기·경풍·체유·푸른똥·설사에

특히 다음가튼증세에 꼭가정에 상비하시압
一、젓, 우유, 밥, 암죽에잘체하며위장이 튼튼치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며쇠약한데
一、간기가잇고젓을 토하거나 푸른똥과 설사하는데
一、체하야보채고울며 잘놀래며경풍과복학과신열잇는데
一、기타간난아이모든病에신효함
類似品注意 갓흔이름이잇스니 경성약국제일아보라지정하시요
各地藥房에서販賣
本舖 京城藥局 京城鍾路一丁目 電光二三七四 振替京城八三六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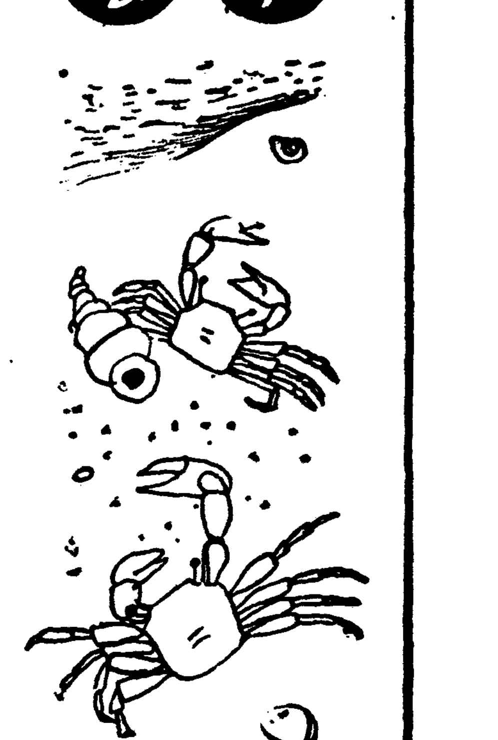
好職業
男女遠近不問年中無休自宅机上에서할수잇는有利한事業。實費한분은申込次第見本呈 大阪天軌線牧岡停留所 日本文藝俱樂部

アイスケーキ는!!
機構完璧、優秀無比斯界의權威 國益冷凍機 鮮內据付臺數第一位
京城府本町四丁目三八 電本局四七〇七番 國益冷凍機會社京城販賣所
大邱府元町一丁目 國益冷凍機會社朝鮮出張所 電話長一一四二番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돈버리에霸王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永久한需要層을가진軍手編物의製造를勸합니다。
○이일이야말로晝夜晴雨에不關코年中活動할수잇슴니다。
○弊所의發明機는操作이單純하야素人에게도그날부터收入을볼수잇소。
○弊所는軍手의製造를家庭의餘剩勞力을活用하는副業으로普及하고綿絲의配給、製品의引受等相互連絡을取하야共存共榮의實을擧키爲하야目下各地에製造家를求하는中이요。
○商務所에는『特히貸貨의便法』도잇소
○就業希望의분은左記事務所에照會次第說明書無料送呈합니다
京城府黃金町五丁目 軍手製造輸出問屋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六〇七一·振替京城二四三八〇番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申請次第型錄進呈)
釜山府舊水町二丁目 城野製作所

學藝



六月創作評 貧窮과 휴마니티 ❶

李源朝

여러가지로 생각한바잇서서 月評에는 손을 대지안코 호려든것이 또 어찌어찌해서 이달 創作評을 쓰게되엿다。

創作評에는 손을대지안코호려한데는 여러가지 理由가잇지마는 그중에하나으로서는 李箕永氏의『産母』(朝光)와가튼作品을 만나는 境遇가 往往이잇는때문이다。한개의 作品을 批評한다는것은 單純이 그作品이 잘되엿다 못되엿다를 말하는것만이 아니고 그作品에서 무슨 다른 여야기꺼리를 抽出하는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다른 이야기꺼리를 抽出하지못한다면 批評하려든사람은 筆硯을 못하는법이다。그리고 그이야기꺼리란 그作品속에 內包된것도잇고 때로는 그作品밧게一다시말하면 그作品의 機緣이될만한 다른要因을가지고 그作品을 이야기할수도잇는것인데 李氏의『産母』는 레ㅣ마로 보든지 作品의 재밋재밋으로보든지 이야기 꺼리가 作品속에도업고 作品밧게도업다。그러타고해서 決코 나는 이作品을貶下하려는 意圖는 秋毫라도가지지아니한것은 이 評文을 다읽으면 알려이지마는 이作品은 貧窮을 題材로한것이다。

作品內容을 簡單하게 말하면 남의 행낭채에사는 어느

一貧一 窮한 自由勞働者의 한家族 남편은 장작을 패여주고서는 日貫몃十錢으로 네식구가 살어가자니 糊口도 채안되고 집세는 석달지나 밀녀서 督促이 성화가튼데 안해는 當朔이되엿다 남편이새벽에 일러나간새 주인마누라는 또 집세를 바드러 왓다가 그當朔한 안해가 배가아프다고 누엇는것을보고 自己며누리도當朔이니(신랑이 한달뒤이나)한달에 한집에서 두解産은 俗忌라고 嚴冬雪寒에 애기베루는사람을 기여코 쪼차낸다 그안해는 허는수업시 어린자식을 데리고 아픈배를 참어가면서 社稷公園예로가서 점점매다가 解産을해다。저녁에도라온 그남편은 겨우 妻子의所在를 차저오니 그모양인데 多幸히 洞里사람의氏護를 입고잇는것을 人力車에 시러가지고 살든 행낭채로 다시 도라와 産母와 襁褓를 그방에 눕혓다는것이다。

이러한 貧窮의 惨地를 그리는데잇서서 作者는 흔히 犯하기쉬운 興奮狀態에 이르지안코

一終一 始가 如一하게 深刻한 레아리티만을 追窮한것은 作家의 洗練된 手腕을 보혀주는 同時에 또한 이作品이 厚重하고 整頓된 늣김을 주는까닭도 여기잇는것이다。

假令 貧窮을 題材한 作品으로서 아직도 人口에 膾炙한 作品으로는 故崔曙海氏의『脫出記』가잇슬것이다。이作品은 벌서 읽은지가 오래되여 자세한 記憶은 업스나 이作品이 나타난 그時代의 文藝思潮라든지 또는 作者의 氣質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보아 當然한 일이라고 하드래도 多分히 興奮한 筆致로 매우 로맨틱한 作品이엿다고 記憶하는데 李氏의『産母』는次코 그러한 色彩가 눈에 띄이지 안는것이 한개의 異彩이라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리고 녯사람의 말에 貧窮은 罪惡이라는 말이잇다。여기에서 이말의 是非는 가릴必要가업지마는 貧窮이란 往往히 착한사람으로하여금

一罪一 惡을짓게하는수가업지안흔것은歷然한事實이다 가령이作品을 보드래도 남편이 새벽에 이러나는것을 보고서『왜 어느새 이러나슈 더주미우?』하는 남편의 대답에서부터 집세에졸니든생각을하니 그만 부아가 치미러서 가진푸념을한바랑하는 場面이잇다(이感情의轉換되는두비에 多少의手法上不足한感이잇스나)

그러나 이作品을 通讀하면그 貧窮이 그다지 甚하건마는 作中人物의 휴마니티가 하나도罪惡에까지 이르지안케 붓드러나간 作者의態度가 갸륵하다하겟다。가장 鮮은 描寫이지마는 행낭채에서 쪼겨나서 露宿이라도 하려가는데 그아들 수길이가 이물과 홋자리를 지고서 따라가는데 한생모자를 쓰기가 부끄러워서 이불를바꾸니에 그것을 처박엇다는것은 이 一篇의 가장 빗나는 곳으로서 그『いぢらしさ』가 눈아페보는듯시 선한것이다。

이것은 이作品에對한 한개의 印象이다。그러나 어作品이 우리에게 따로히 이야기꺼리를 남기지안혓다는것은

一作一 者로 더부러할말이지마는 다시 살든행낭채로 드러간뒤에 이作中人物은 엇더케될것인가? 假令 作中人物의 그다음에을運命이라고해두자。그것이 將次 엇더케될것인가? 어것을 萬若 作者가 無理로 해피·엔드를 지으려고햇던들 나는 이作品에서 幻滅을 늣겻슬것이다。그러나 또한 이善良한人物들이 永遠히 貧窮의深淵에 허덕이는것을 그대로두고 보는것은 作者나 讀者나 함께 暗然할일이아닐까?

漢陽朝의 政治家群像 ㉓

湖岩

大院君과 明成后

大院君의 이야기를 할때 明成后의 이야기가 自然히 나오게된다。그는 그럴밧게 업는것이 大院君과 明成后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를 가젓슴이다。

어느 意味에서 朝鮮末의 政治史는 大院君과 明成后의 爭鬪史에 지내지 못하나니 幾多의 風雲活劇은 모다 이 두분을 中心하고 비저내인 産物이다。

國父로서 執政이된도 先例업는 일이지만 國母로서 世道할도 역시 明成后께서 처음이니 大抵 成宗以來 高宗까지 幼主의 即位에 限해서 垂簾의 政을 行한 例는 前後 七次나 잇섯스되 이런 特別한 境遇外에는 王后가 政權에 干預한 일이 업섯다。

이로보면 明成后의 世道는 역시 韓末政治의 變態現象의 하나로서 當時奇傑 大院君의 失脚도 이明成后때임을 생각할때 后도 凡人이 아니심을 알것이다。

大院君의 十年동안 粗暴한 獨裁政治는 對內對外로 失策도 적지안혓스나 明成后를 中心한 閔氏라는 外戚의 勢力이 아니면 到底히 國太公의 地盤을 흔들리업섯다。

大院君의憤怒는 畢竟后兄 閔升鎬를 爆死에 이르게한바 이로부터 數十年間은大院君과 明成后사이에 軋轢이더욱露骨化하야 殺戮의慘禍가 몃번이나 演出하엿는데그中에도 가장有名한것은 高宗 十九年에 일어난 壬午軍變이다。

이軍變의 煽動者는 지실로大院君인바 이로해서 淸國의干涉을 招致하는同時에 日淸兩軍이 京城에來駐함을 보게되엇거니와 이것이다시 二年뒤에 再轉하야 高宗卄一年甲申政變이 되엿다。

甲申政變은 金玉均等의 改革運動이나 壬午軍變과서로 密接한關係를 가젓스며 이로부터 十年뒤에 일어난高宗卅二年乙未政變에 이르기까지 大院君과 明成后사이에 爭鬪가 繼續되엿스니國初부터 각금잇던 王室의骨肉相殘이 이에 이르러 아주結末을짓고 말앗다。

그러나 大院君께서도 乙未以後로는 政權에 뜻을두지안코 雲峴宮에서 老年을靜養하다가 光武二年戊戌에七十九로 그波瀾만흔 政治家의 一生을마치엿다

文化公議 (三)

學者의奬學基金

鄭寅燮

世界는 지금 混亂의 渦中에 잇다고한다。

文化는 危期에 處해 잇다고 한다。

그리고………

人類는 不安을 늣끼고 年들은 갈바를 모른다고한다。 思想은 呻吟하고

…青…

知識階級은 해매인다고한다。

그리하야

어두운가운데서 暗中摸索하는 사람들은 來到할文化의 進路를 밝히려하고 새로운르네상스를 期待하고잇다。

어려한 時期에 잇서서 緊急公議의 材料가 許多하겟지마는 나는 其中에서特히 한개의 具體的公議로서 『學者를爲한 奬學基金』을 提唱하려한다。

나의 見地에 依하면 人類文化史는 세번재의 苦悶期에 處하얏다는것이다。第一期는 古代에對하야 中世紀의 繼承的相衝으로 말미암아 暗黑時代가 왓지마는 그다음의 黎明期인『르네상스』는 實로 知識階級에 依하야 胚胎發展되엇이엇고、第二期로는 浪漫主義時代에 對하야 自然主義時代의 繼承的相衝으로 말미암아 世紀末의 苦悶과 世界大戰이 잇섯지마는 그다음의 黎明期인

…新…

理想主義時代의 새로운文化創造도 亦是 知識階級에 依하야 發端展開되엇든것이 事實이다。그런데 其後 文化는 또다시 複雜化하야 第三期로『쏘시어리즘』에 對하야『파시즘』의對立的發生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기에 도다시 一種의 世紀末風潮가 反復되게 되엇는데 過去의 例로 推想컨데 今後人類文化도 이것으로 滅亡될것도 아니요 또 知識階級이 이번에 全然 無能力할理가 업다。卽 文化의 遺産을 再吟味하야 取捨選擇을하며 그以上의 獨創과發展을圖謀할것은 오로지 知識階級 特히 學者들의 硏究와 努力에依하지안을수업는것이다。

그런데 學者라고하는것은 大槪그本職이 眞理의 探求에 잇는만큼 政略的手段이업고 財政으로보아 消費行爲인만큼 恒常生活의 苦難을밧게되는것이다。더구나 社會狀態가 不安할때는 大略 政治的 經濟的無力者인만큼

…輕…

蔑視되기가 쉽고 따라서 그들의 生活難은 거진 放任狀態에 잇게되는것이다。더구나物價暴騰하는 時期에잇서서 그들은 家族扶養의 現實的重荷때문에 硏究材料蒐集을爲하야 消費할 餘裕를 가지지못하고 蒼白한 얼골로 沈鬱한 苦悶에서貴重한 時間과 緻密한 頭腦를 썩히고 잇게되는다。

朝鮮의 學的水準이 過去에잇서서 歷史上으로 자랑할만한것이 적지안엇고 所謂近代文化의 洗禮는 比較的 늣엇다할지라도 最近各方面의 學界消息은 여러가지 有望한將來를 推想케하는 바가잇다。이것은 實例를 들지안코도 理學界로 醫學界로 文學界로 甚至於 女性界에잇서서도 文學、美術、音樂舞踊等이 未曾有의 發展과 優秀한技能을 漸次보이게되엇다。이모든 文化朝鮮은 體育朝鮮과 한가지로 世界的水準을期待하게되는素質이잇다는것을말함이다。

그러나 이모든素質과 好消息을 如何히 結實케하는냐 하는데 對해서 나의 論議는 한거름 더나아가『學者를 爲한 奬學基金』이 아직도 하나업다는것을

…指…

摘코저 하는것이다。學校와 學生을爲한 奬學基金은本格的意味에 잇서서 내가 말하는바 運用에 잇서서 또는 事實『學者를 爲한 奬學基金』은 되지안는것이다。學校의 全體學的水準과 學生自身의 頭腦가 다른社會에比해서 低級하지안을뿐아니라 오히려 優秀한例가 만컨마는 卒業以後 學究의 終身的繼續이라던지 學術의 世界的水準性을말하면 다른社會에 比해서 훨신 떠러지는것이 事實이다。이것은 學者의 健康、時間、財力의 問題인데 結局은 硏究費의 缺乏에 起因되는것이다。就職한 有名의 學生을 工夫시키는것도 必要하거니와 한사람의 世界的學者를 釀成하는것도 朝鮮으로서 必要하지 안을가?

外國에서는 政府로서나 民間團體로서나 個人有志로서나 學校當局으로서나 學者를爲한 多의 巨大한 奬學基金이 잇서 學術의 世界的事業과 有名한學者는 大略 여기서 産出되는것이다。

知識階級의 頭腦와 學者의精力으로 된 現代文化를 享樂하는 豪華로운 生活의 무리들을 許多히본다。그러나 그들學者는 지금 굶주리고 잇지안는가! 最近 學界消息으로 優秀한 몃개의 出版物이 가난한 著作者自身의 生活費에서 기름짜내듯、큰犧牲에서 自費로 出版되는것을 볼때 나의提議는 有志諸位의考慮를 바라 마지안는바이다。

映畫에서어든공트

일허진地平線 (中)

安懷南

비록 되다찌부러진 詩는 지엇슬망정인저 亨劍는 書籍과學校와 學問과는 아주 담을사코 徹頭徹尾하게 運動精神에만生活하는 少年이엇다。

―어떠케하면 팔을 一寸이라도 좀더굿게 맨들고 따라서 만흔 腕力을엇게될가

―어떠케하면 살이 쪄서(그것도 비지살이나 두부살은말고 알자筋肉)體重을 늘게하나

―어떠케하면 肺의 容積의差를 五寸以上 突破하야 레코드를 지울수잇슬가 그러케만되면『막스베어』와 가리 十二回戰을 繼續하더라도헐덕어리지안흘것이다

―어떠케하면 아무리 편치가 强한 選手에게 어더맛더라도 그까짓것 조금도 아푸지안케 불룩아지와 胸筋과 배가죽等을 鍛鍊식히나。

―어떠케하면 풋웍을 自由롭게하고 몸을 날래게 기질수잇슬가。

이 有利할것갓고 亨劍는 그두가지가다 되어보고시픈 亨劍는 이 서로 矛盾하는 두先輩의 말슴에 暫間 煩惱한일이 잇섯스나 지금에 그는啞鈴을 使用하기로 한것이다。現在에는 輕量級이지마는 將次 二十歲가 훨신 넘는 날에는 헤비웨이트로 나와야한 목숨보게될것이요 또 뎀뻬로修練하야 굿세인 腕力을 어드면 그만치 決定的인 편치를 所有하게 되리라 미덧기까닭이다。

―에헴 拳鬪選手。

―世界選手權保持者。

―一回試合에 入場料金五十萬弗의半額。

―담박에 朝鮮甲富 빰치게되는 財産家。

―그리고 메리필빈孃。

亨劍는 拳鬪의 월드 챔피온으로 大歡迎裡에 亞米利加로가서 다시『갈리포니아州』『유니벼살 스타지오로 메리필빈[illegible]을 訪問하는 꿈을 꾸엇다。그는 [illegible]으로 自己의 몸을 [illegible]지를 [illegible]처보앗다。이러케 무지하게 [illegible]에 노하야 여간 사람들의 주먹으로는 마저도 [illegible] 업시 될것이기 때문이엇다。丁抹體操、深呼吸、啞鈴、엑스판다 飛體、드레닝、샌드빽、샤도빽싱、펀칭빽、木棒、크립프메신、亨劍는 닥치는대로 해넘기엇다。길을가다가 맛나는 수만흔사람들이 모다 제拳鬪의 相對手가되는것처럼 그들과 술적만 身體가 서로 맛게되어도 亨劍는 熱烈한 멘시로조금 점프를 하는것이엇다。밤낫으로 주먹을쥐어 [illegible]을 처보고 다툼박질을하고 메리필빈孃의 肖像畵를 끄내어 勇氣를 북돗고 다시 自己 體重과 上腕과 가목을 재어보고 양양이빠와 득아니빼를 運動器具도 무질러서 힘을드리고 가진 야단을 다하엿다。

南山엘 每日 올라오는것도 學校는 가기가 실흔탓만 아니라 敎室에는 여러學生들이 모여잇슴으로그混濁한 空氣가 自己의생생한 肺臟에 害스러 될것이다。最近에 와서는 亨劍가 어더케생각하야 더욱 學校를 메어때리는 것이엇다。어느새에 잡자리한마리가 저편으로부터 날러와서 衣服을 벗고 日光浴을 하고잇는 亨劍의 벌거케탄어개우에 안젓다。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 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 樂】 DER WANDERER (放浪者) 슈ㅣ벨트

【피 아 노】 IMPROMPTU (即興曲) NO. 4 (作品九〇) 슈ㅣ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第一樂章 로ㅣ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庶務部로交附함(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表 彰 入賞된분에게는本社로부터콩쿨賞金을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玄濟明 桂貞植 金元福 鄭勳謨 朴泰俊 【無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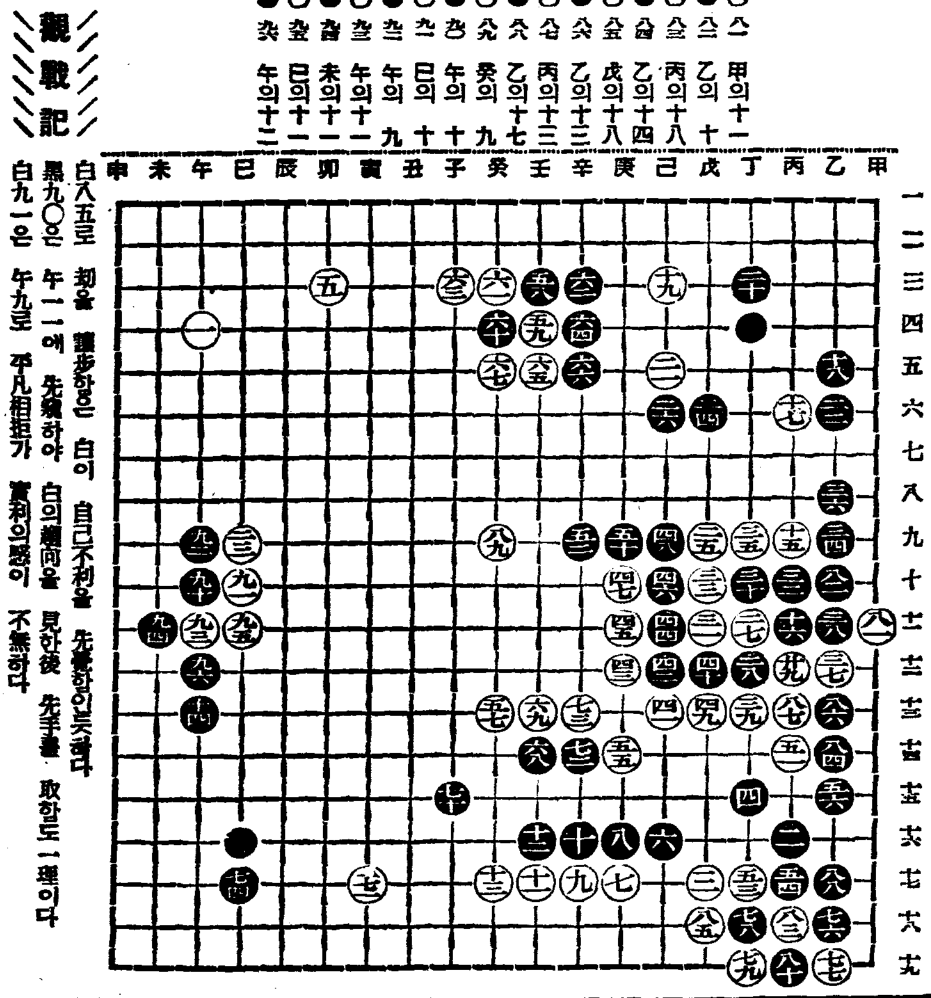
主催 朝鮮日報社

新刊紹介

◀敎會音樂 第九卷 (內容)어머님의기도 은혜를찬송함 그일홈찬양하세 종되여서 주의영광올等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京城音樂出版社 振替京城一五三七六番 定價二十錢 送料三錢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6)

白七段 廣瀨平治郎
黑二目 丁奎春



觀戰記

白八五로 却을 讓步함은 白이 自己不利을 先覺함인듯하다 黑九〇은 午一一에 先覺하야 白의動向을 見한後 先手를 取함도 一理이다 白九一은 午九로 平凡相拒가 實利의感이 不無하다

★그것을防止하는 새로운發見★

술이나담배가衛生上有害하다는것은말로는떠들고잇스나飮酒家나喫煙家기조곰도減해지지안슴니다。생각컨대長久한習慣이 차이고차여서禮儀上、社交上嗜好上日常生活과는끈을래야끈을수업는關係가되여잇서서絶對의禁酒禁煙은米國의禁酒法이마침내撤廢된事實로만봄지라도不可能이겟지요。

그보다도알콜이나니코친의健康에밋치는害를硏究해서그것을可及的防止하는方法을講究하는것이賢明한일입니다。

어던아메리카의學者가 每日警察의身勢를지고잇는주정방이의한사람한사람마다

××尿를×× 바다가지고調査한結果 醉한程度와尿中의알콜의量과의사이에 一定한關係가잇고 또血液中에含有한알콜의量은 尿의그것과大略一致하다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그에依하면 血液一구람中에一미리그람以下의에칠알콜을含有해잇슬時는 얼건이醉하고 二미리가되면愉快하고 三미리에갈지字거름 四미리가되면 너털웃슴과건酒酊의本性을暴露하고 五미리가되면 前後不覺하게醉해떠러지고 六미리가되면 意識을일허버리고 이以上 알콜量이含有할時는 急性中毒으로 生命의危險을 隨伴하게됩니다。

急性中毒까지 가지안흘지라도 血液은 알콜때문에 酸度가强해지면 過酸症(아지도지스)을 일으킵니다。아지도지스가되면 全身細胞의 活動이 非常히弱해짐으로 疲勞가되고 病에對한 抵抗力은 減退해집니다。

胃腸에잇서서는 細胞組織이아지도지스때문에 衰弱해지는우에 알콜이直接粘膜을 刺戟해서거칠게함으로 二重障碍를밧게됩니다

××結核×× 病者中에는술은盜汗을抑制하고 榮養도됨으로使用해서 조타고밋는분이잇슴니다。

예전에는有名한結核醫가 小量의술을服用시킨例도잇지마는 그것은 療養所에서 醫師가病狀을仔細히調査한후에 試驗하는療法의一部分인것이니삼가지안흐면안됩니다。정말食慾을그런一時的刺戟으로어려나는것이 아니고 榮養劑로서는그價値가만흔것이 업마든지잇슬것입니다。

胃腸을防護 强烈한刺戟으로부터

마찬가지 皮相的觀法으로 煙草도利로운것으로 밋는분이적지안슴니다。例하면 담배를피우면 食慾이나고 疲勞가풀리고 便秘가낫고 結核이옴지안는다 는等 愛煙家에잇서서는 참으로 그럴듯한말이지마는 醫學上으로말할것가트면 未安한말슴이지마는 正當한根據가잇다고는할수업습니다

니코친은 알콜과가티 神經을 刺戟하고 甚한痲痺로 陷入하는故로、沈滯한胃腸의 活動은一時的으로 活動한뒤에 前보다훨신疲勞하고맙니다。니코친은한번胃腸으로吸收되야、再次粘膜으로分泌할때에激烈한刺戟을일으키고

××粘膜×× 은出血을일으키고、胃液의分泌를 增加하며、特히鹽酸의分泌를더하게함으로、이도한胃酸過多、胃潰瘍、胃弱等을招來키쉽습니다。또니코친의 殺菌力도體內에잇서서는別수업고、오히려咽喉나 氣管이나肺와肋膜에强烈한刺戟을 주어서抵抗力을 弱하게하야、結核菌의侵犯하는길을만드러주는害가얼마나 큰지알수업습니다。

그리고도 알콜이나 니코친은血液에混合되야 全身을도라다님으로 長久한時日동안에는 循環系統의心臟과血管을나뿌게하야血壓亢進이나 動脈硬化를 誘起하야 胃臟이나神經에도害를 밋치게합니다。따라서 술과담배를조아하는분은 特히 그러한害를防止하는方法을 講究하여야될것이며、이러한意味로推奬하고저하는바는『錠劑わかもと』의常用에잇슴니다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잇서서、最近에는血液의酸性化를防止하는成分이잇슴도發見되고잇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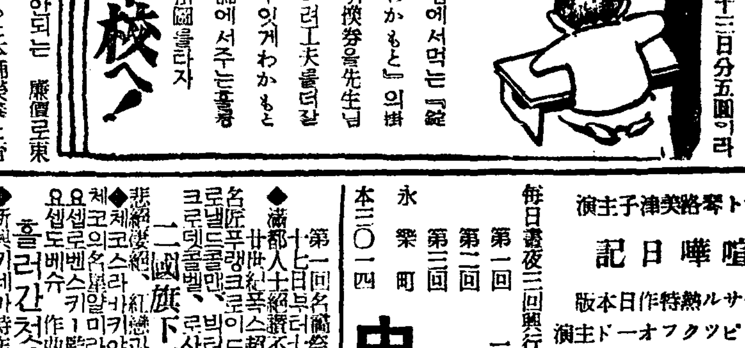
그럼으로『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면아지도ㅣ지스때문에일어나는諸器官의衰弱이 防止되며 特히胃腸에對해서는十數種의酵素와營養素가

××補給×× 되는故로 胃腸의活動이 整調되야 寶的으로나아가지고 消化、吸收 排泄等의活動이 整調되야 胃酸過多症、胃擴張、胃下垂、胃弱等도正常한健康이되며 便秘도 自然조아져서、食慾이 배속에서 湧出하게됩니다。

그우에新陳代謝가旺盛히되야 體內의알콜과 尼古丁의 排泄도 促進하야 酒醉나 宿醉가업슴니다。

血液을 淨化하는두그레인 비타민、호르몬과가튼 物質等의榮養도 豐富하야 血壓亢進이나動脈硬化를 防止하는 成分도 證明되고잇슴으로 술이나담배를조아하시는분이 前記와如히『錠劑わかもと』가 齊方面으로 綜合的으로 效果가잇는 재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入十三日分五圓이라 一日數錢도아되는 廉價로東京芝公園、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頒布하며 全國藥店에서도 팝니다마는 右會로藥價만보내시면送料는 會에서負擔해서 急送합니다。



집에서먹는『錠劑わかもと』의 函를引換券을先生님께드려工夫를더잘할수잇게わかもと本舖에서주는훌륭한掛圖를타자

體驗을말함

商用으로 飮酒家와交際해서

(大阪) 曾根庸夫

나는元來술을 못하야 한두잔의술로도곳빨개저서 그자리에 견듸지못할만치 술에弱햇습니다。

昭和八年商用으로滿洲의熱河에갓슬때滯在한友人의집이料理집이여서 主人은아침부터한잔하고 食事를하는關係上할수업시 한두잔식하게되엿습니다。

아시는바와가티 滿洲의겨울은零下十幾度가普通이여서 外出이困難하기때문에 始終日房안에서만잇게되는故로 朝夕으로 飮酒를繼續하야 胃腸을나뿌게하고거정햇습니다。우연히『錠劑わかもと』를試驗해보앗는데 대단히나의게맛는것갓해서 商業上의送迎會나 交際上의宴會에나갈때마다 주머니에『錠劑わかもと』를 넣코가서 十粒가량식술내먹곤햇습니다。友人은술뭇먹는내가 長時間의宴會에도천연히잇는대놀내엿습니다 胃腸이조하진셈으로 밤에잠도잘자고 二個月後에는얼골빗치조아지고 점점살이찌게되엿습니다。나는벌서初老의域에達하엿사오나『錠劑わかもと』服用後의健康은 三十代에比하야衰弱해진것갓지도안사오며 다른사람은얼골보고 한十年어나젊어젓다고들합니다。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六月十七日早터三日間大公開 帝王商標曲馬團 毎日晝夜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 三回七時三十分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名作 傑作 眞珠의頸飾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프랑크보사ㅣ기氏 主演 마ㅣ레ㅣ네떼이트릿히 게리ㅣ쿠ㅣ파氏
松竹蒲田超特作全發聲 監督 島津保次郞氏 現代名篇 その夜の女 共演 田中絹代、小林十九二、三宅邦子
甲陽映畵社特作 監督 下村正一氏 時代活劇 鬱走白馬隊 主演 羅門光三郞氏 松浦築枝
十七日ヨリ二十日マデ 四日間公開 階下席十錢均一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千惠藏 ? 俺の喧嘩日記 ニューアゲサールス特作日本版 チャーリーフピッツクフォード主演
ジャパの東 羅門光三郞 綾小路絃三郞主演 眞田十勇士

團成社
第一回名畵祭 十七日早터十九日까지 ◆滿都人士絶讚不己 名匠프랭크보이스드監督 世紀大作 二國旗下에 悲戀、紅戀、悲戀! 로델드콜맨、빅터맥라그렌 競演
◆체코스라바키아映畵 흘러간첫사랑 ◆新興키네마特作映畵 仇討膝栗毛 ◆유니버-살社超特作 思春調 ◆新興키네마特作映畵 小間使日記 古川登美主演
十七日ヨリ 晝夜三回 大人 五〇 學生小人 三〇 P.C.L超特作、大佛次郞原作、成瀨巳喜男監督 江戶川蘭子、佐伯秀男 霧立のぼる 主演 雪崩 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監督 我等の仲間 國際ニュース

若劇
六月十七日早터三日間大公開 晝夜二回上映 料金二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朝鮮映畵週間 京城撮影所創立一回作品 前科者 白南프로덕슌 一回作品 沈淸傳 羅雲奎、崔德先主演 曲藝團 獨乙우파社超特作映畵 바리에테 次週映畵 西遊記 血과砂

光武劇場 往十里町

湖南의 工都 群山의 躍進相

朝鮮第一"米港"에서 工業群山에로 轉向

距今三十九年前엔滿目荒凉한小漁村

開港以來飛躍또飛躍

群山의位置를 地圖面으로볼진대 朝鮮의西南海岸에臨하야 東經百二十六度四十二分 北緯三十五度五十九分에 位置되야잇다。

그런데 群山은 開港前에는 갈대(蘆)가 滿目荒寥한 一小漁村이엿섯든것이 光武三年即明治三十二年五月一日 韓國政府의 勅令에依하야 群山을 끼고흘러내리는 湖南을 育하야준 朝鮮의 五大河의 一인 錦江으로하여금 開港을 보게되바 開港當時에는 人口겨우 五百餘名에 貿易額이또한 一萬二千圓에 不過하던것이 明治四十三年三月六日 群山鐵道가 開通되자 追年發展의 一路를 밟을뿐아니라 工費二百八十五萬圓을 드려 大正十五年度에 起工을하야 昭和七年度에 第一期築港의 竣工과 또한同年에 群山府行政區域擴張等으로因하야 昭和十一年末現在로서 戶數九千六十二戶에 人口四萬二千一百二十七名으로서 最近七年間의 人口動態를 記錄하면 다음과갓다

昭和五年 朝鮮人一六、五四一 日本內地人八、七八一 外國人六三八 同六年 朝鮮人一六、八四三 日本內地人九、一一五 外國人五八二 同七年 朝鮮人二六、二〇〇 日本內地人七、〇〇〇 外國人三六五 同九年 朝鮮人二七、一四四 日本內地人九、四〇八 外國人四〇七 同十年朝鮮人三〇、七四二 日本內地人九、七一二 外國人六二四 同十一年朝鮮人三一、四九二 日本內地人一〇、〇六三 外國人五七二

그리고 貿易額도一億一千萬圓에 達하며 또한米穀輸移出만이 一百二十八萬五千餘石을 突破하야 米穀港으로서의 斷然朝鮮第一을 點하고잇는바 最近十年間의輸移出米의 數量을보건대다음과갓다

昭和二年一、四四〇、九二二 昭和三年一、六三三、一六七 昭和四年一、二四三、六〇三 昭和五年一、〇八三、〇四三 昭和六年一、六六五、六六五 昭和七年一、六六六、〇五二 昭和八年一、七〇〇、四九三 昭和九年一、六三六、一三三 昭和十年一、五二〇、四三三 昭和十一年一、二八五、六五〇

그런데 이곳에서 一言코자하는것은 群山이至今까지 「米의港」으로서 그일홈을떨치게된것이 歷史的으로보아 偶然이아닌宿命이엿섯다는것을 말하라한다

群山을 歷史的으로볼진대 群山은 沃溝에 屬한바 沃溝郡을元百濟의 馬西良縣으로 그後新羅朝에는 沃溝郡이라稱한後臨陂郡에 屬하얏섯다 그後다시 高麗辛祖六年에 群山에다 鎭을두고 兵馬使로하야금 臨治를 하다가 世宗五年에 群山을 鎭浦에두어 戰艦、兵艦、伺候船을두워 關防하다가 李朝中葉孝宗三年에(西曆一六五二)大同賓米法(上納米)이라는 新法令이 實施되자 群山에는 湖南縣이라는 官衙가 設置되야 全州의밤(栗)과 모시(麻)를비롯하야 沃溝、萬頃、咸悅、金堤、扶安、及其他全羅北道內의 貢米를集中하야 海路로仁川으로해서 그곳에서陸路로 서울(京城)로上納을하다 이는前記한바와가티 群山이 全朝鮮唯一의 米穀呑吐港으로의 일홈을 떨치게된것은 實로偶然한일이아닌 宿命的이엿섯든가한다。

히 利用할지대 年年거듭하는天災下流數千萬圓에 亘하는 洪水의被害도 豫防할수가잇스며 또한俊히有益한 國家事業으로도 될수가잇다。

工業都市로서의 要素以下簡單히 群山이 工業都市로서의 條件을 槪述하라한다。

一、工業用地 (1)港灣에直接面한 地面(地均工事를 要치아니하고 建築할수잇는) 坪八圓以下四圓、面積五十萬坪

(2) 港灣에 거의接續된 適當한區域(一二粁以內) 坪二圓以下一圓、面積五十萬坪

二、工業用水 參禮로부터 取水計劃一日分一千立方米(四十五萬石)으로 萬一不足인時에는 錦江 揚水計劃에 依하야 大量供給할수가잇다。

三、電動力 朝鮮電業株式會社는 江景等에서 目下 五萬키로의火力發電所를 建設中임으로 그竣功後에는 極히 低廉한價格으로 群山에供給할수가잇다

四、水陸運輸狀況 群山港을 終端으로하야鐵道及道路는 全州木浦大田線等地로 經由하야 四通八達하야 貨物運輸에 까지 利便을주고잇다

(2)、海運大阪商船朝鮮郵船其他各汽船會社의定期그는 不定期航路를 往復에가장便利하다

五、勞働者 全羅南北道忠淸南北道를 通하야 男女 約十七才人의 性質은 優良하며 勞賃이 低廉한勞働者가잇다。

上述한바와가티 廣漠한 用地 豐富한用水 天惠의港灣 多數勞働者 自家發電에依하던 그는送電에 依하던 廉價로될수잇슴으로 群山은 南朝鮮唯一의 天惠의工業地로서 벌서 鐘紡會社의大工場을비롯하야 임의本年度에着手할豫定된 工場이 三社나됨으로 群山은 今後工業都市로서의面目이 躍如할것을確信하는바이다

大工場續續進出

府會議員으로工場委員任命

基地斡旋·地價도協定

群山은 至今까지 經濟都市 即 「米의群山」으로서만 그일홈이內外에 노파왓더니 一兩年前부터 日本內地의 大財閥들이朝鮮에의投資가 자장有利한것을看取하고 朝鮮의各要地에 事業地帶를物色하는 氣色을보인 群山府에서는 商工會議所와 提携하고 昨年三月에第一次로 群山佐藤府尹을先頭로府尹及商議員等이渡日하야 大財閥들을 歷訪하고 鐘淵紡績을비롯(지난六月七日工場基地埋立起工式을擧行)하야 石田擴寸工場平壤의太平燒酎其他數商所의(이는아직秘密에붓친)工場等의 設置及豫定을보게되엿슴으로 群山은 不遠한將來에 經濟都市에서 一躍工業都市로 完全한轉向을하야一大工業都市化될것은明若觀火이라 그리고 現在(昭和十一年末)群山에工場法適用에依한工場은 三十九個所로 그를 細別하면 다음과갓다

紡織工業 一 金屬工業 三 機械器具工業 五 化學工業 三 製材工業 二 印刷工業 八 食料品工業 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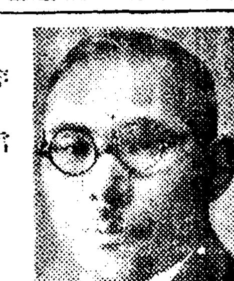
그리고 또 群山에는方今府會議員中에서 工場委員을 選定한後 工場地帶選擇 工場地斡旋地價協定等의 重任에當하야 工業群山의 建設을爲하야 蕪力中인바 委員은 다음과갓다

牛尾 樋口 赤松 氏家 光富 金永熙 山本一男 徐鴻善 淸水

工業都市群山에

條件具備、準備도進捗

群山府尹 佐藤德重氏 談



序言

우리群山은 朝鮮의西海岸 湖南의呑吐港으로서年額二百三十萬石의 米를移出하는 所謂『米의群山』이 벌서『工業의市群山』에로着板을 발군지僅僅一年을經하야 工業都市로서의 形態를着着具備實現에 이르러왓슴은『天勝』以上의曲藝가아닌가。나는昨年의年頭에『米의群山에서工業都市群山에로』라는 一文을草한바 各方面으로부터 絶讚을受한바 그만흔사람中에는 鼻笑한사람도잇섯스리라고 생각하는바 그도無理는아닐것이다 工業地라고하면船車至便의 港灣 低廉이면서廣漠한用地 豐富한用水의 三要件을絶對的이것이다 그런데압해흐르고잇는 錦江은 朝鮮五大河川의 一로六、七千噸級의 巨船의出入은되면서도 工業用의飮料水쫌도困難을맛고 잇슴으로써이다 그러나 俗談에『窮則通』한다는것과가티 府民이바우(岩)도貫通할만한信念과 熱意만이잇다면 祈願을成就할수잇슬것이다。

用水計劃確立

群山附近의 地下에는 豐富한地下水가잇서 朝鮮總督府工業試驗所에서는 群山 郡里 參禮方面에亘하야 約二千個所에 가까운『보이링그』試驗을 實施中이며 또群山府益沃 臨沃水利組合과의三者共同事業으로서 參禮及九耳面地方에서 大量의取水調査와實行協定이 成立되야 이에對한事業을着着進行中인바 群山府로서는 飮料水와 工業用水로서 最少限度로一日三十五萬石(六萬五千立方米)을 群山에서 使用할만한計劃을세우고 進行中인바 이에依하면參禮로부터 非灌漑期에는 自然流下와 地下水에 依하야 一日五千萬石을 水利組合의 旣設水路에 依하야 導水하야 群山으로부터 四粁의 地點에 約二百二十町步의 大貯水池를 築造하고

府會議員의 群像

高地帶消防施設

政治的手腕家 徐鴻善 氏

氏는當年四十二歲의 壯年으로서 群山公立農業學校를것치고 大正四年에 京城法專을 맛치고 裁判所書記兼通譯生으로 勤務하다가 大正十一年四月에 早大政經科에 再入學하야 同十四年에同校를卒業한後 時代日報社政治部記者로서 健筆을揮하다가 大正十五年五月에 同社를辭하고 卽時司法代書로轉向하야 今日에至한바 公職으로는 群山府學校費評議員을비롯하야 地方自治制實施後 群山府會議員에 一回當選 第一回로부터 現在까지 第二部副議長의要職에 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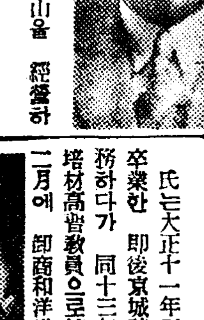
氏는 政治的手腕家로서 論理整然한 辯論은 府政壇上에잇서 一異彩로 府理事者도한 愼重과考慮를하야마지아니한다。

그런데 氏의持論으로서는 朝鮮人部落의 汚穢物掃除와、道路改修及街燈施設問題로 第一期間(四年)을두고 남달리 力說하야온바 同問題가어느程度까지緩和되자 이젼 論調를다시하야 朝鮮人部落인 高地帶의 消防施設로 府當局者를 肉迫하고잇다。

氏의 論旨의 一端을 紹介할진댄 平地帶에는 消防施設이 充分하야 一次 有事時에도 充分한 活動을 할수가잇스나 高地帶에 萬一火災가 잇슬境遇에는 消防施設의 全無로 全滅을 難免할것으로 그들은 더욱히 恢復할힘조차 업는窮民들이 아니나는것으로서 筆者도한 實로當을 得한主張으로서 共鳴하야마지아니하는바이다 (寫眞은徐鴻善氏)

共同宿泊所設置

重厚剛毅의能辯家 金永熙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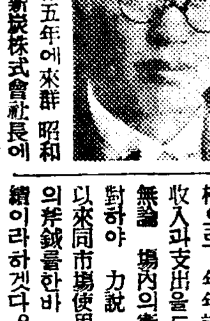
氏는 일즉 群山公立農業學校를마치고 官界에 多年勤務하다가 大正十五年에 司法代書를開業 視務하다가 實業으로 轉向하야 現今은 大鑛山을 經營하고잇다。

群山府會議員에 一回當選、現會計檢査員으로서 氏는 頭腦가明敏、性格이重厚、理智가洞察하며 또한 能辯家로서 所信을向하야 泰然自若한 姿勢로서 滔滔히 論述하는 그凜凜한 氣風은 府政壇上에잇서 漸然 第一人者로 조곰도 遜色이업다。

그런데 氏는 大鑛山主로서만흔 勞働者를 ?하는關係로 그들의밋(底)까지 잘아는지라 그래 그러는지 氏의論調에는 늘『푸로파간다』的 論味가 잇는바 그의一例로는 今年度後算會議에 잇서『群山港이 全朝鮮에서 穀港으로 일홈을 떨치게됨과 또는 群山이 今日의發展을 보게된것은 오로지 無産勞働者로 더부러 그들이 第一線에나서서 勞働을 한결果인바 엇지 그들을 爲한 施設 卽窮民街의 모든施設을 비롯하야 共同宿泊所 實現에 對하야 昨年度에도 말을햇슴에도 不拘하고 어찌해서今年度에도 實現치 아니하느냐하고 목메인소리로 長時間을 痛論하야 府當局者를肉迫한바 이는 群山이 全朝鮮一의 勞働港으로서 至今것 共同宿泊所가 업다는것은 그들로하야금 實로 不幸한일로氏의主張은 至極히 時와 當을 得한論調로서 同宿泊所가 氏로더부러 速히 實現하야마지아니함을 渴望하는바이다。(寫眞은 金永熙氏)

市場使用料減下

才氣潑溂의策士 全義鎔 氏



氏는大正十一年三月神戶商大를 卒業한 卽後京城殖産銀行에 勤務하다가 同十三年四月에 京城培材高普敎員으로轉職 同十五年二月에 卽商和洋雜貨[illegible]商會를 經營하다가 昭和五年에來群 昭和九年春에 群山新炭株式會社長에 就任 今日에至하다 群山府會議員當選에 二回 現會計檢査員으로서 氏는 드물게보는 才氣潑溂한策士로서 洗練된論辯은 든結果(實)를맷는다 一例를든다면 朝鮮人市場使用料에잇서 事實을詳許格으로 年年歲歲豫算會議時마다 收入과支出을드려 使用料減下는 無論 場內의衛生施設과設備等에 對하야 力說又力說로 昭和十年以來同市場使用料에잇서 大減下의 拜錢을한바 이는오로지氏의功績이라하겟다。(寫眞은全義鎔氏)

負擔過重을痛論

計數的頭腦家 趙南冕 氏

氏는 일즉群山公立農業學校를마치고 群山府吏員을 十年餘를奉職 恩給年限을마치자 全州專賣局囑託을轉任 昭和七年度에 群山鹽共同賣捌所理事로新任하야 今日에至하다

群山府會議員은 今番이初回로 氏는 篤實한基督敎信者로서 性品이溫厚寬大하며 圓滿無缺한好紳士이다 氏는조금超越한말이나 選擧當時 敎會의支持를바덧는지라 敎會의利害關係에잇서선 辯論을 애끼지아니하다 그一例로는 敎會經營인 永信幼稚園의 補助成功을들수가잇다。

그리고 氏는 群山府勤務十年餘에 直接稅金賦課의任에當하엿기로 府民의 稅金負擔如何를 누구보다도 精通한지라 그를府政에 反映한배로 今年度豫算會議時에 歲入歲出과 將來에 累增될稅金을 計數的으로드러 府民의 負擔過重을論破한바 이는氏가아니고서는 들을수업는 心臟을 꿰뚤르는 直論이엿섯다

航路開拓을絶叫

百斤强弓을찬武士 金白龍 氏

氏는大正五年 群山公普校를맛친後家事에 從事하다가 大正十年群山靑年會組織을 契機로 社會運動에 轉向하야 靑年同盟新幹會 群山勞働聯盟其他 各團體에干與한바 氏獨特의 三段論法은當時無二의 花形으로 推戴되얏섯다 現在는群山府會議員에 二回當選된 百斤强弓을 허리에찬 武士와가티 豪俠活達士로 회살을 이관여놀 꽤놀드시 氏의論旨는늘꽤놀고만다 그實例로는 昭和十一年度 後算會議時 群山食料品市場 使用問題에잇서多數可決로 決定된 議案을府條例를드려 飜案否決을 식인바 이는府會史上에잇서서 처음보는失態이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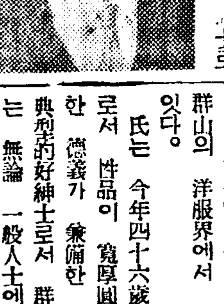
그리고氏는 蠶食되야가는 群山의商圈을爲한 航路開拓論은氏의持論으로서 그리하야 過般部內商議聯合會 忠南瑞山 安眠島等地로 産業視察을하게된것을氏로더부른結果이라하겟다 (寫眞은金白龍氏)

公職者大會도出席

力과躬行의一人者

公職界의元老 金炯基 氏

氏는 일즉 群山公立農業學校에서 受業을 하다가 뜻한배잇서 京城外國語學校에서 一年間受業한後 다시 朝鮮土地調査局에多年勤務하다가 職을 辭하고 歸鄕하야 代書業、新聞支局記者等을 거처 實業界로 轉向하야現在에는 大醸造場을 經營中이다 群山府學校費評議員 群山府協議員을 지나 地方自治制가 實施됨을따라 府會議員에 當選二回(現會計檢査員)이라하야 氏는群山의現公職者中으로는 元老로서 府政에잇서 此가 一旦是라하고 생각할때에는 他에게 一步도讓치아니하는 不屈剛直의 鬪士로서 所信을 向하야 躍躍一路論及함에 잇서선 實로熱과力의人이 아니라고 누가 敢히 말할것인가 그리고 氏는 實踐躬行의 人으로서 일즉 昭和五年 六月 京城에서 開催된 全朝鮮公職者大會에參席하야 朝鮮에義務敎育實施와 朝鮮人本位의中等敎育機關增設에對하야 力說한바가有한바 當時의波紋은實로 컷섯다。



그리고또 群山府營共同住宅中止에對한 反對意見主張과 授業料減下와그差額에 對한國庫補助要望等問題가 問題이엿섯스니만큼 當時當時一般에게 큰목소리를부엇섯스며 또한道路受益稅廢止論은 氏의持論으로서 늘누구보다도第一線에나서서 奮戰을하야마지아니하다

그리고 氏로하여금 特記할바는 三個月間 授業料滯納兒童에對한 停學處分案에對하야 初等敎育에 잇서 그는너무도苛酷한政策이라하고 氏獨特의辯舌로서 結局否決식히고만것이다

金融界功勞者

大野金組理事 金東尹 氏

活達한性格과 雄快한言辯에다가 明敏한頭腦의所有者인 沃溝郡大野金融組合理事金東尹氏는 益山郡礪山의出生으로 當年四十四歲의 壯年으로서 大正七年에 益山商業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卽時扶安郡上西金融組合副理事 益山郡秋富金融組合副理事를거처 昭和十一年六月에沃溝金融組合大野支所가 設置되자 同所專務에就任하얏다가 昨年十一月에同所가 大野金融組合으로 昇格되자 氏도또한理事로 昇進되야 現在에至하엿다

그런데 氏는金融界에 獻身한지 二十年間中 特記할바는 金融組合은 事務氏의 손으로創設된것으로서 氏가金融界에 가친貢獻이란 참로特筆할바이잇다 그리고氏는 方今二千五十一名의 組合員의 福利增進을爲하야 獻身的努力을 하는한便 또한農村啓發을爲하야 蕪力中이바 氏의 率先不拔의 實行力은 氏로하여금 將來에 더욱 成果를 收穫할것을미더마지아니하게한다

各界名士의面面

沃溝郡의德望家

全北道會議員 盧兢湜 氏

氏는昭和六年에 群鷄一號의學績으로 京城普成專門을마친後鄕里인 沃溝郡瑞穗面馬龍里에 歸鄕하야 方今農村啓發을 爲하야 第一線에서서 實踐躬行을하고잇는바 氏는 志操가高潔하고 性質이 剛毅果敢 人格이 高邁 德義까지 兼備한 그야말로 버릴곳이업는 頭腦가明晳한데 德望家이다。그리고 過般道議選擧에 當選을한有爲의 靑年道會議員으로서 氏는 在校當時에는 辯論部長으로서 그외일홈을 떨친바 今後道政壇上에서 氏는 雄辯家的 謙讓的侃侃의 論議를크게期待하는바이다。

氏는現瑞穗産業株式會社長 群山新榮株式會社重役을 活躍하는한便 沃溝郡小作調停委員 沃溝郡農會評議員 沃溝郡學校費評議員等의 要職에在하는바 氏는 또한義俠心이强하야 農村啓發事業 敎育事業等에 多額의 金品을寄附한바로 氏는沃溝郡內의 가장功勞人으로서 一般에게 尊敬과推仰을바더마지아니한다。

그리고 끗흐로氏가 過般選擧時에 全郡民에게 披瀝한所信의 一端을紹介하야서 氏가 全道民을爲하야 敎育、課稅、施設、勸業等에 對하야얼마만한經綸과抱負를가지고잇는가를엿보이려한다 『鐵近長足의勢로서 進展을하고잇는 本道의道政에 關하야서는 [illegible] 는바이다 [illegible] 朝鮮十三道中의 [illegible] 모든方面으로進展에 [illegible] 行하야서 [illegible] 면아니된다 [illegible] 한道는 [illegible] 는바수日과가흔 [illegible] 本道는 [illegible] 이나 [illegible] 立하야 잇지못하다 [illegible] (寫眞은盧兢湜氏)

沃溝內機軸을掌握

豪膽寬厚의士 高漢珪 氏

氏는 沃溝郡米面米龍里에 本家를두고 自手로成功한 立志傳中의一人者로 當年三十四歲의意氣潑溂한壯年으로 方今沃溝郡內의모든機軸을쥐고잇는 重鎭이다 方今同郡澮縣面金光里에 金光酒醸造場이라는 大醸造場을經營하는한便 沃溝郡學校費評議員 米面協議員 西部水利組合評議員 新興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 群沃酒造組合評議員等의 要職에在하야 農村啓發에 만흔努力을하고잇다 그런데 氏의性格은 豪膽寬厚의士로 氏性格의 片鱗을엿볼진댄 昨年度에 沃溝郡一圓을 襲來한風、虫害로因하야 一般農作物이 全滅狀態로 一般作人들은 말할수업는困境에빠저잇는 慘狀을보고氏는自進하야 小作料의 免除를 하는同時에 一步를進하야선 오히려救濟까지한바가잇섯다 그리고 또氏는 知識之間에 信望이두터워 아무리어려운일이라도 一旦付托을 바들진대 조금도서슴치 아니하고 自己일처럼 熱誠을다하야가며 풀보는格이다 그의一例로서는 [illegible] 業務에도不拘하고 付托을 일정밧음에도不拘하고 [illegible] 가잇다

그리고氏는 또郡內의篤志家로 [illegible] 新興公立普通學校增築等의 [illegible] 寄附한것을 비롯하야 沃溝公立農業實修學校(六月十五日開校式擧行)의 基地로 氏가 가장애겨하는밧(畑)二千四百餘坪과 同郡澮縣公立普通學校等에도 多額의金品을 寄附한바 郡民의 稱頌이 놉흔바 氏는 압흐로 郡內의各界事業을爲하야 만흔活動을 애끼지아니하리라고 一般은 期待하고잇다 (寫眞은高漢珪氏)

唯一한少壯實業家

商工會議所議員 丁斗鉉 氏

氏는 當年三十四歲의 少壯으로서 朝鮮人으로서의 嚆矢인 日本醬油釀造場을經營하는한便 昭和酒造場을共同經營하고잇는 群山에서드물게보는實業家이다。

昭和十年度에 一般有志의推薦으로 群山商工會議所議員에 當選되야 一般商工業者의 福利를爲하야 方今努力을하고잇는바 氏는 大正八年부터 同十五年까지 前記商工會議所에 奉職한바잇서 商工通으로는 群山에서 第一人者인同時에 商工會議所議員으로서 充分히 實力을發揮할것으로 此에對한 囑望이가장놉습니다。(寫眞은丁斗鉉氏)

獨學으로成就

辯護士 曺圭璞 氏

群山府開福町에 事務所를둔辯護士曺圭璞氏는 全南和順郡綾州面의 出生으로 幼時부터 才藝가明晳하야 獨學으로서 大正十一年初에 郡屬으로 任命되야 同十三年末까지 全南康津郡屬으로 勤務中 現在에 滿足치를아니하고 다시 大望을품고 前記郡屬을辭免한以來 萬難을 排除하고日夜로 法學에對한 硏究를쌋은結果 昭和二年에 朝鮮辯護士試驗에 가장優秀한成績으로 所期의目的을 貫徹하얏나니 그리하야 同三年初에 群山에와서 前記事務所에開業한以來 現在에이르는바 群山에잇서 氏의出現은 群山法曹界에 커다란刺戟이잇슨뿐아니라 氏의人氣는 그야말로 旭日의勢 그대로이엿섯다。

그리고 民刑事訴法을勿論하고 氏의銳利한法的解釋과熱辯한 辯論은 氏獨特의推讓者로서 群山의 法曹界에잇서서 名實共히 第一人者로서 그의將來가 크게囑望될뿐아니라 將次群山을 爲하야 貢獻할배가 만흐리라 期待된다。(寫眞은曺圭璞氏)

七顚八起의成功

同昌社社長 扈根澔 氏

『前途가 多望한 새成功家 扈根澔』氏는 京城人으로 일즉舊韓國官立中學校에 受學하다가 家勢의 赤貧으로 因하야 業을 畢了치못하고 退學하얏다。約二百圓의 資金을 鳩聚하야 鍾路大廣橋西便에 雜貨小賣業을 開始하니 時年이 十七歲이엿다 그러나 業況에對한 光明이別無함으로 百餘千兩을 주하던結果 京城東部梨峴市場을 創設할時에 그市場內 第一號店舖를占有하야 開業하얏나니 이에비로소 百種千類의 東西雜貨를 具備한後 京鄕에 가장 薄利로써 需應하얏다 그結果는 三萬圓의巨商이 되게됨으로 一方으론 實屋營業을 始業하얏나니 이로서 보건대 氏의活動如何를 可히미루워 알수가잇겟다 사람됨이자못 剛直하야 內外國人의信賴이 非常하얏섯다 그러나不幸할사大正三年五月頃에 隣家의 失火로 因하야 一萬五千圓價値의巨大한 損害를 蒙함으로 不得已約二個月間休業하얏섯스나 爾後八月에 다시 業을 開하고 더욱 擴張한後 綢緞布木까지도 兼하야서 京鄕에 酬應하는바 注文이 逐至하야 一寸의餘暇가업는바 今日에 歐洲大戰이 開戰한後 將來物價의 騰貴로 因하야 十萬圓의 巨利를得하얏나니 君의所有 不動産及動産을 總計하면 二十萬圓以上에 達하는바 今日의 엇지 一個貧兒로서 이를 成功함에 對하야 鼻치아니할수잇스랴 그리고 履歷은 如左하다。

明治三十年京城發起草販賣組合監事(三年間)同四十四年 同理事(八年間) 大正元年京城質屋組合評議長(二年間) 京城東大門市場納稅組合 副組合長(五年間) 同二年京城廣成商會卷煙草製造會社朝鮮總販賣所專務取締役(四年間) 同四年 京城東洋貿易組合長(四年間) 京城商業會議所評議員(二年間) 同七年京城東洋[illegible]株式會社常務取締役兼金融部長(資本金百萬圓、三年間) 뭇컨대 年齡겨우三十二歲의靑年으로서 今日의成功을 일운 實로一驚에値할만한일이다。

以上의 一文은 大正七年 當時의 評論雜誌인 半島時論 十一月號에 揭載된것으로 前記一文으로미루워볼진댄 氏는當時 京城에서 흔히도업던 人物이엿섯스며 또한公人으로서도 活躍한배가만흔 그야말로 當代의風雲兒이엿섯다는것이 넉넉히엿보아진다。

그런데 이는 時運作戱다고나 할가 大正七八年 歐洲大戰으로 因하야 物價가 天井에 몰르고 할時에 貿易을하야 두엇든 物品이 드듸여 講和가되자 잡을수업시 急落하는바람에 氏의 財産에 그만 致命傷을 주엇섯다 그리하야氏는 울분한마음으로 仁川에 달려가서 投機에손을내던바 뒤를이어 失敗난이 連續하게되야 그만餘地업는 失敗를하고마럿섯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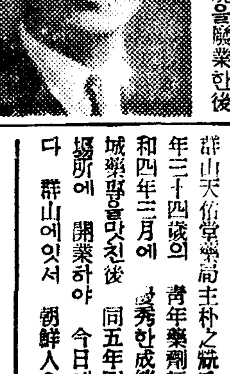
그래氏는 時不利를慨嘆할뿐 오래동안을 失敗苦를겪다가 昭和二年一月에 來群을하야 同九年九月에 金融業인合名會社 同昌社를創設한後 氏스스로가 社長兼專務理事에就任 視務를하는한便 資本金五萬圓 群山共同金融株式會社(創立中)大正生命 日本敎育生命等의 代理店을 맛터보고잇는바 氏의現在의 地盤은 過去에比하야 雲泥의差가되리만치 堅固不敗로서 氏야말로 七顚八起라는字句그대로이다。

氏는 豪膽强腹하고 雄志滿身하야 武人의 風이잇고 또한理智가明晳辯論快暢하야 志人의來가잇다。氏는 當年五十一歲의 壯年으로서 工都群山의 發展과아울러 氏의 事業도 大飛躍하게될 것을 豫期하는바이다。(寫眞은扈根澔氏)

典型的인好紳士

永信洋服店主 鄭順文 氏

氏는 일즉木浦永明學校를拔群의成績으로卒業한後 即時木浦耶蘇病院에招聘되야 多年間同病院助手로서 臨床研究를 쌋흔다음 大正五年春으로 來群하야 群濟病院을經營한바 當時朝鮮人의病院으로서는 同病院이 嚆矢이엿슴으로 一般府民에게서 만흔信望을바더오다가 同七年末不得已한形便에依하야 裡里로移轉開業하다가 同九年末同病院을廢業한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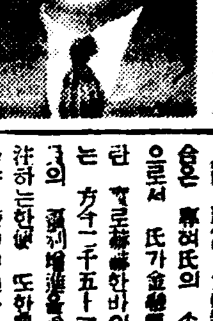


同十年春 再次來群하야 永信洋服店을 開業하야 現在에至한바 同洋服店은 昨年夏 群山의 玄關인 昭和通의 中央地帶에 二層洋館을 新築移轉한바 群山의洋服界에 잇서서는 同洋服店의右에 나올만한곳이 업스리만치 群山의 洋服界에서 牛耳를쥐고잇다。

氏는 今年四十六歲의 壯年으로서 性品이 寬厚圓滿하며 또한 德義가 兼備한 드물게보는 典型的好紳士로서 群山의 商界는 無論 一般人士에게서도 絶對한 尊敬과 信望을 밧고잇다 그리고 氏는 일즉 群山府學校費評議員等의 要職에 在한바도 잇스나 公人으로서의 또한 群山을爲하야 活躍한배가 만헛섯스며 現在에도 東部金融組合의 評議員으로서 一般商工界를 爲하야 蕪力하고잇는바 氏는 아프로 群山의 商工界를 爲하야 또는 公人으로서의 만흔 期待와 囑望을밧고잇는분이다。(寫眞은鄭順文氏)

靑年界模範人物

理智聰明한 蔡毅錫 氏



氏는 當年二十九歲의 溫厚篤實하며 人格과財産이 兼備한 模範的靑年이다 일즉 靈岩永明學校高等科를 拔群의成績으로 맛친後 方今 歸鄕하야 沃溝郡米山面高峰에本家를두고 農村啓發과農民指導에 蕪力하고잇나니 氏는 頭腦가聰明한俊才로서 일즉 實踐運動에 뜻을두고 第一線에나서서 農民大衆을爲하야 活動한적도잇섯나 그리하야 某種의 嫌疑도 한동안囹圄의몸이된적도잇섯다 그리고 氏는公共事業에는 犧牲的熱誠과또는 德義와 信義가두터워서 가장信賴할만한 靑年으로서 一般은氏를 尊敬하야 마지아니하는바 압흐로 氏는 農村振興을爲하야 一層더 貢獻이잇스리라는것을 期待하고잇다 또한氏는 스포-츠에對한 理解와 熱誠의所有者로서 體育方面에도 만흔功績이잇서서 斯界에서도 갈호推仰을 밧고잇다 (寫眞은蔡毅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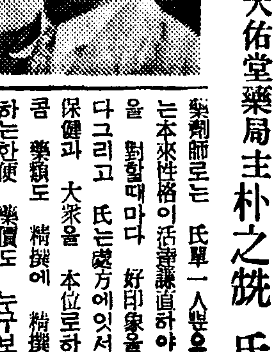
過去엔爀爀한論客

重厚寡言한 崔益 氏

氏는 일즉現每日申報의前身인 大韓每日申報의 一筆者로서 健筆을 휘둘르던 爀爀한 論客이엿섯다 그러다가 日、韓合倂이되자 붓(筆)을내여던지고 鄕里인 忠南保寧에도라와 다못琴鶴과閑日月을보내다가 뜻한바잇서 大正八年에 來群하야 群山의延米時代로부터 只今까지 朝鮮人으론 單一한 一回의 營業인 上商店으로하야금 全朝鮮人을代表하야 凱旋旗를지키고잇다 氏는 天性이 重厚寡言과 또한德義가兼備한바로 늘對人으로하야금 [illegible] 그리고 氏는 現在에끄치지아니하고 압흐로도 무슨큰事業을 이르켜서 마지아니하리라한다

藥劑師론一人者

天佑堂藥局主 朴之銑 氏



群山天佑堂藥局主朴之銑氏는 當年三十四歲의 靑年藥劑師로서 昭和四年三月에 優秀한成績으로 京城藥專을맛친後 同五年四月에 現場所에 開業하야 今日에至하엿다 群山에잇서 朝鮮人으로서의 藥劑師로는 氏單一人뿐으로 氏는本來性格이 活潑謙直하야 會客을 對할때마다 好印象을더어준다 그리고 氏는處方에잇서서도늘 保健과 大衆을 本位로하는니만큼 藥類도 精選에 精選을거듭하는한便 藥價도 누구보다도最廉價로 提供을한다 그리하야 氏의藥局으로서의 地盤은 堅乎不拔인바 將來의 繁榮이 한層더 期待된다。(寫眞은朴之銑氏)

(以下는五面에)

群山商工會議所

群山府幸町五 朝鮮産業精米所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群山支店

朝鮮糙米株式會社 群山支所

沃溝郡 五日會

沃溝郡守 朱時憲

沃溝郡面友會

朝鮮精米株式會社 群山支店

躍進號를내면서

群山支局 金俊權

群山은開港한지 三十八年 人口五萬餘를擁하고잇는 湖南의關門으로서 요즈음一兩年間에는經濟都市에서 工業都市에로 轉向을하랴음으로 工業都市로서의 온갓機構를갖추우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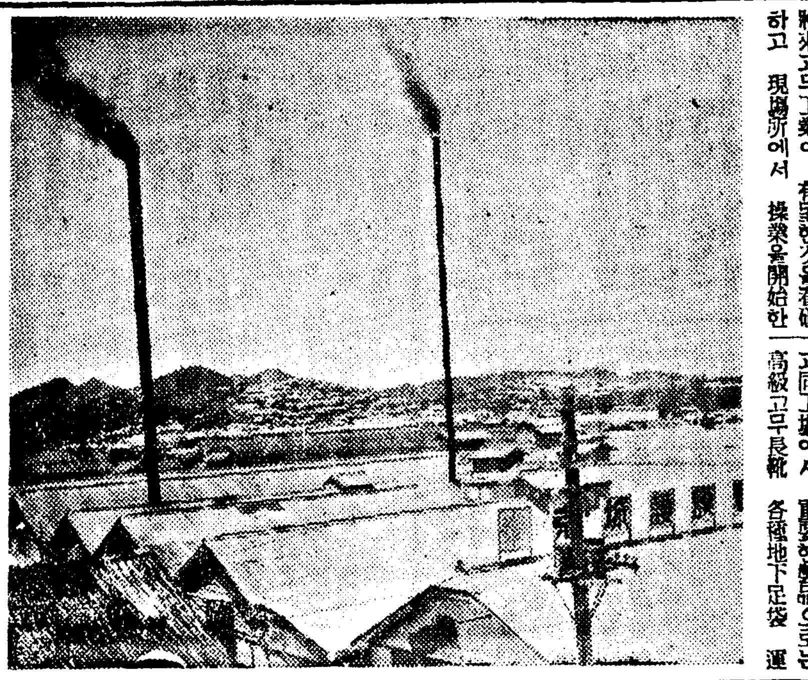
그런데 群山에新聞이 드러온지十七八年 내도한新聞과 因緣을매저 九年、내늘側面으로나마 群山을 中外에 一次알리라는一念은 오래前부터 내머리에 印刻되엿스나 當時不利를 嘆하야 往往今日에이르럿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時不利만을 嘆息할배아니라고 깨닷지도 한 本社로부터의 指示가잇는지라 그에 與感한배로 逍開着手하야 내인것이 題目이示하는거와가티 全鮮의群山이못되고 一側面에不過하다 그러나 이것이群山에잇서서 처음이됨에는 내어지事치아니하랴!

그리고 어번躍進號를 내이면서 一層更深刻히늣겨지는것은「웨群山이 이가티명부엿나」하는것이엿섯다 날로도無限 내도한群山은 밀할때에는米의群山「湖南의關門」「躍進群山」等等이러케말을하야가면서 끗으로 全的인群山即縱橫으로의 群山을머지아니하야 남부끄럽지아니하리만치 다시 紹介할것을 約束하며 다못 讀者諸位의 健福을빌뿐이다

工業群山의雙璧

京城고무와東亞製油

全朝鮮고무界를制覇할 京城고무合資會社



群山驛前인 榮町한복판 中央一바 漆漆히 소스는煙突에서 漆漆히黑煙을吐하고잇는京城고무合資會社 그야말로群山工業界의 代表인同時에 貧弱한우리의工業界를 代表하야 萬丈의氣焰을 吐하고잇다 同會社는 昭和七年에李晩秀氏가將來고무工業이 有望한것을看破하고 現場所에서 操業을開始한바 業務가日復日繁昌하야 現在에는 資本金全額拂込七萬圓으로 工場敷地가千五百坪 工場建坪이七百餘坪 從業人員이五百名(그中女子四百名) 使用動力이 年三十萬「키로」로서 每日生產高가八千乃至五千足을算하고잇다 그리고同工場에서 重要한製品으로는 高級고무長靴 各種地下足袋 運動靴及布製靴 朝鮮式總고무靴一切 內地와滿洲向고무靴 其他고무製品一般으로서 重要한原料의 仕入은原產地인 南洋等地로부터 當하리라는바 同會社의 陣容을 볼진대 理智明哲의 聰俊뿐이며 販路는 全朝鮮一圓으로하고 山間僻地를 無論하고 同會社의製品이 가지아니하는곳이업다하며 또한 全朝鮮各主要地에는 支店과代理店이 配置하야잇스며 最近에는 國外에까지도輸出을한다고한다 그리하야 同會社는 信用과 人氣가 나날이集中되야 方今은 生產不足으로晝日夜業을하는 狀態로 七百餘坪의 工場이오히려狹隘하야 近者에는工場의 增築工事로부터울려나오는「함마ー」소래는 끗칠사이가업는바 同會社는 어느편으로 미루워보던지 將來群山의工業界를「리ー드」할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그리고 同會社代表社員인李晩秀氏는 群山府會議員에 當選된바도 잇섯스며 群山商工會議所議員에 再次나當選되야 現在는常任議員으로서 一般商工業者를爲하야 活躍을하고잇다

代表社員 李晩秀 支配人 金谷喆

(寫眞은同會社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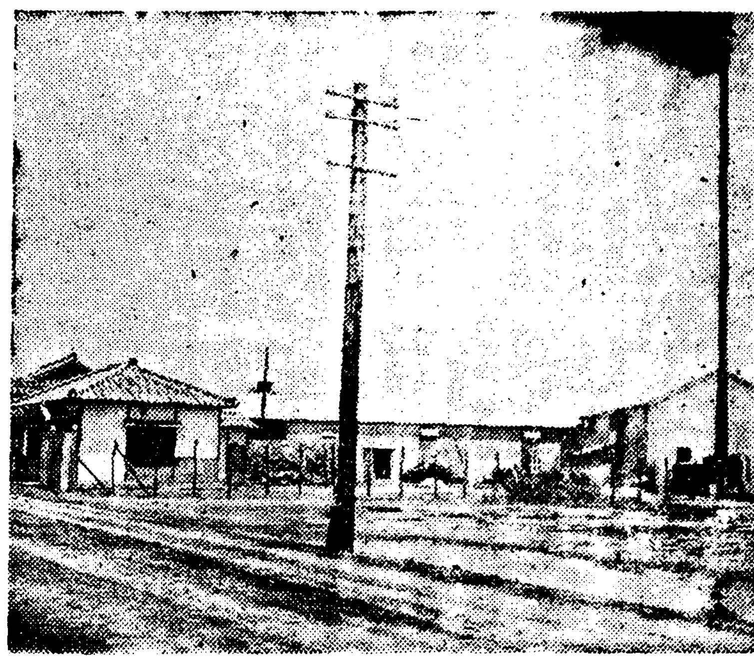
工業群山을「리ー드」할 東亞製油合資會社

群山의工業地帶인 日出町한복판에屹立하야 漆漆히 黑煙을배앗고잇는煙突과아울러 周圍를에워싸고잇는大工場 이는群山에잇서 京城고무會社와 雙璧으로되여잇는 東亞製油合資會社이다。同會社는 高敞의有志李宗燦氏가 事業에큰뜻을품고 來群하야 資本金六十萬圓으로서 昨年十二月에起工 今年一月에竣工하야 同二月에始業하바 製油의原料는 겨(糠)로서 每日生產油가五十罐、副作物로粕이多數產出되는바 製油는거의軍用으로 提供되다하며 粕은肥料로 또는 製菓原料、醬油原料等으로 日本內地等地로輸出한다고한다

그리고 同會社에서는 傍系會社로 群山에잇서서 가장歷史가오래인 長田精米株式會社를 買收하야 東亞精米合資會社라고 命名한後 方今改築中으로 서同工場도 現在精米機 八臺를 十六臺로 增設하야 每日二千俵生產을 目標로하고 操業을하리라는데 同精米部에는 社長의 令侄인 今年에 拔群의 學績으로明大를 卒業한 今年 二十六歲의 有爲의靑年 李鏞勳氏가 그任에잇서서將來의 工業群山을「리ー드」할것으로서 期待하야진다。

그리고 社長李宗燦氏는 高敞高普設立當時에 氏의功勞는 無論그後同校 理事의 職을 六年間이나 歷任한바잇서서 教育界에 도만흔貢獻이 잇는바 氏는압푸로群山에 잇서서도 만흔社會事業을할것으로 一般은 期望을하고잇다。

(精米部) 社長李宗燦 社長代理 李鏞勳



(寫眞은 同工場全景)

群山著名店舖案內

流行本位高級綢緞商 群山『天洋社』偉容

商品은原產地에서直輸入

社主엔新進氣銳 鄭燦洪君

彗星的出現인 流行物本位의高級綢緞都散賣商天洋社는 群山의銀座인榮町한中턱에 堂堂히君臨開業하야 不過一個月餘에 일홈을燦然히떨치고잇다 그는그럴수박게업다 現代的店舖構造 산뜻한裝飾 豐富한在庫品等等 이는顧客으로하야금 嗜好와滿足을주고남음이잇기때문이다 그리하야 店舖에는 늘雜踏를일우고잇다。 그리고 同社主鄭燦洪氏는 昭和三年日大商學部를 拔群의成績으로卒業한後 即時官職에登龍 總督府를비롯하야 道、郡、稅務署에奉職하기十年 在職中主로 直稅를擔當하야 敏腕을위두르다가今年四月에 家事의形便으로 同職의事情하야함도不拘코 辭職開業하야 今日에至한바 將來有望한實業家됨에 조금도不足한點이업는今年三十三歲의 好靑年이다。

그리고 同社에서는 仕入部主任으로 京城綢緞界에서 十八年間이나 活躍하야 斯界의 名聲이놉흔朴公進氏를마지하야 一般商品仕入에는 氏가第一線에나서 各原產地로부터 直輸入으로因한 中間利潤을 顧客에게주어 조흔商品을싸게고 자(尺)후하게…」이를金條로하고잇는바 同社는 躍進群山에 併行하야 不遠斯界를「리ー드」하리라한다。

(寫眞은 天洋社와 鄭燦洪氏(右)朴公進氏(左))

洋藥의「百貨店」인 玉山堂藥房壯觀

醫藥이 人生의保健上 不可缺한것이라고하면 刀圭界에서 四十年間蓄積된 經驗으로써 裝飾된玉山堂醫院長 陸燮炳先生이잇고그의 令息陸在崑氏가 玉山堂藥房主人으로써 뚜렷한對像이라하겟다 陸在崑氏는 今年三十七歲의 靑年으로써 溫厚謙直하야 與人對客에늘 好感을주며 또한頭腦明晳으로서 일즉小學校에 修學한後父君의 醫院에서 善히補佐하는反面에 醫와藥의分水嶺을식고저 藥種에對한 修練을硏磨하야왓다。 맛침내昭和二年五月에洋藥種商을 開業하야 現在에至한바 今年은開業滿十五週年을 마지한 今日에至하야 藥으로써 最適合다한 報復은三尺童子라도 몰을리업시 玉山堂藥房이라면 玉山堂醫院을 聯想하게되야 群山을中心으로 全北忠南一帶에 可謂斯界獨占地盤을形成하야 開業者의 羨望의的이되얏고 營業科目을 보아「藥의百貨店」이라는 別稱을 가젓스니全國的으로 有名製藥의 十餘代理店이라는 特權으로 各官公署 病院 漢藥 醸造業 農場等 各方面의取引은 同店의擴張하고잇는바 藥品은 다음과갓다。

醫療藥品 內外新藥 理化學用藥品 工業用藥品 鑛山用藥品 農園用藥品 醸造用藥品 寫眞用藥品 有名賣藥 醫療器械 衛生材料 고무製品諸種 塗、染料各種 高級化粧品 郵便切手 收入印紙類 和洋酒類 카렌다

杏林界의諸面貌

各科에造詣가深奧 安東病院長 權泰亨氏

安東病院長 權泰亨氏는 群山에잇서 朝鮮人으로서는 單一人者인醫學士로서 各科에造詣가深奧한바 氏의醫學的力量은 實로敬服하야마지아니한다。

氏는大正八年에 大阪府立醫科大學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同九年一月에 群山江戶町에서 開業하야 現在에至한바 氏는 또한方今群山公普校醫인同時에 沃溝郡各公普校醫의任에當하고잇다。

그런데 氏는다만醫師로뿐만아니라 公人으로서도 群山의發展을爲하야 盡力하고잇다 即大正十年度부터 群山府學校評議員의 二回當選을비롯하야 昭和八年六月에 群山府會議員補缺選擧에當選되얏섯스며 또뒤이어 十年度의總選擧에 再選되야 今日까지 府政에서 活躍하고잇다

氏는 人品이 溫厚하며 따라서 寡言하다 그래 群山에잇서선 드물게보는紳士이며 그야말로無言의勝者이다 그러나 한번所信을 披瀝할時에는 初志를 貫徹치아니하면 마지아니하는 堅乎한性格의所有者이다 압푸로 醫師로는 無論 公人으로서도만흔 期待를가지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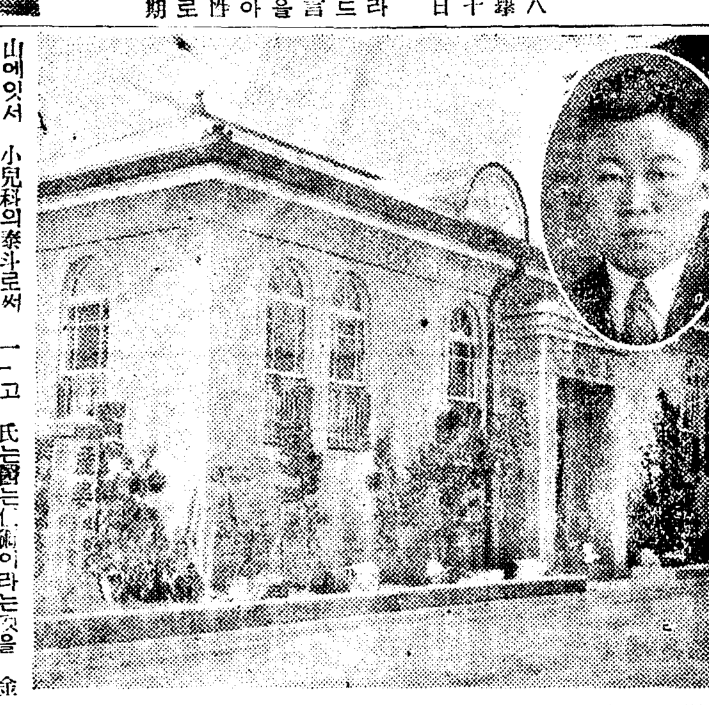
(寫眞은 安東病院과同院長)

小兒科의泰斗 世昌醫院長 姜世馨氏

群山에잇서 小兒科라고하면 世昌醫院이라고 指稱하리만치 群山에잇서서 小兒科의泰斗로서 一般에게 認識이깁다。院長姜世馨氏는 沃溝의出生으로 大正十年에世醫專을優秀한成績으로마친後 곳 뒤를이어 同病院에서 一年間研究를쌋은다음 同十一年度에 忠南江景에서 開業하얏다가 同十二年十二月에群山으로 다시移轉開業하야 現在에至하엿다。氏는篤實한基督敎信徒인데 天性이溫厚謙讓하야 늘사람을對할때마다 友愛를느끼게한다 그리고 氏는醫는仁術이라는것을 金條로하고 늘貧者에게는 無料施療를애끼지아니함으로 一般은氏에게對한 稱頌이자못놉다 뿐만아니라 氏의沈着 用意周到한診察은 一般患者로하야금 安心하게한다 그리고 氏는다만醫師로서만이아니라 社交에도能함으로各界人士한테서 好紳士로서또한尊敬을바더오는터이다。

(寫眞은 世昌醫院과院長)

產婦人科의巨擘 仁濟醫院長 李章熙氏



「產婦人科의巨擘」인 仁濟醫院長 李章熙氏는 慶北大邱出生으로當年三十歲의 少壯醫師이다。氏는昭和八年四月에 大邱醫專을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자 即時群山道立醫院에 拔擢되야 產婦人科에서 同十一年七月까지 滿三年四個月間을 臨床治療을하는한便 學的研究를싸은後 前記群山道立醫院을 辭하는 即時로 現場所인 群山府開福町에 開業하야 今日에 이른바 얼마前群山府囑託醫로 任命되얏다 한다。氏의性格은 重厚謙遜한典型的紳士인데 聰才로서 方今도늘바쁜條暇를 틈타서 學究을게을리하지아니하는바 이는一般으로 하금 無條件으로 氏를 支持하게되야 開業하지 日淺하나 氏의降尙的技術에 對한 名聲이날로 놉파 每日患者가 還至하는 現狀이다。어쩌든 氏의出現은 群山刀圭界에 커다란波紋을 이르킴과同時에 氏의存在는 慾望과가티 빗나고잇다 그리고 氏가群山刀圭界에서가장少壯하나 學的研究를 게을리하지아니하고 잇슴으로 將次醫家로서 大飛躍을 豫期하게되는同時에또한 躍進群山으로서도氏에게對한 囑望이 크다

(寫眞은 仁濟醫院과同院長)

漢醫界의明星 普信醫院長 金昌文氏

氏는全南咸平郡出生으로 幼少 年부터 漢學에有意하야 十年間을修得한後 또다시 多年間을實地研究한분으로 그야말로 群山에잇서 漢醫界로 名實共히明哲인바 氏의性格이도한 溫良謙直하여서 늘氏를 對할때 好感을가지게한다。 大正五年에 群山에 普信醫院을設하엿는데 氏는 小兒病에 神効가 잇슴으로 每日患者가 還至하되 氏의診察의詳愼과藥材의 精選으로 酬應이如流하며 宅診及 往診에料金은不拘하고 夜聽又는 食時라도 患者가來하면 親切叮嚀한은 實로 感心할바이다 그러무로 一般은 氏로터부터 將來醫界의 模範이 되리라고 일카르고잇다。

(寫眞은金昌文氏)

縱橫으로活躍 沃溝郡公醫 金亭植氏

氏는 일즉日大豫科에서受業을하다가 醫學에뜻을두고 昭和六年群山道立醫院에서 實地研究를쌋은後 同七年度에醫師試驗에無難合格하야 即時沃溝郡公醫로任命되야 今日에至하엿다 氏는頭腦가明哲하며 性格이溫柔直하바로 이는氏의人格을한層더 돕보이게한다 그리고氏는 방금沃溝郡學校費評議員、大野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等의 要職에在하야 縱으로醫人으로서의 郡民의保健을爲하고 橫으로선 公人으로서의 郡民의福利를爲하야 盡力中으로서 一般郡民은 氏에對하야 信望이가장놉다한다

群山釀造界의元祖 群山新興酒造場

群山釀造界의元祖로 新興酒造場! 이는 事實을 꾀드른名詞로서그일홈은 얼마나리만큼 一般의머리에印처잇다 創業은 이로부터 二十二年前인 大正五年에 비롯하야 今日에至한바 그의業績은 日復日繁昌한바로 一年釀造高가 濁酒四千石 藥酒三百石 其他燒酎、過夏酒의醸造를가지고 잇는바 特記할바의過夏酒는 全羅南北道에서 同種醸造一個所뿐으로서그酒味芳香는別味아말로酒家의愛好를바닷고잇다。그리고同醸造場主 金敏淳氏는 溫厚謙直에德望가兼備한 今年四十一歲의少壯實業家로서 일즉이優秀한成績으로 群山公立農業學校를마치고 群山府에 會計主査로在職하기十七年 昭和七年度에 轉任한바 昨年十二月 群山의各醸造業이 統制併合이되자 職을 辭하고 來群하야 二個所醸造場을 收統合하야 方今 經營中인바 氏는酒味의 向上을圖키爲하야 昨年四月 總督府中央試驗所에와서 一個月間의 酒造講習을하고온바로 그技術的으로 釀造한酒味는 一般의好評을 밧고잇다。

그리고 氏는群山金組監査를비롯하야 數多한 公職에도在한바 群山에잇서個人이經營하는醸造場으로는 新興酒造場一個處뿐으로서그 前途가 華華할것을 一般은믿고잇다

(寫眞은同酒造場과金敏淳氏)

齒科醫界兩星

齒科醫의元老 四鳳堂齒科醫院長 黃河雲氏

黃河雲氏는 全北出生으로서 昭和六年三月에 京城齒醫專을拔群의學績으로맛치자 同年에六月 全北井邑에서 開業하얏다가 衆望에依하야 同八年四月에 群山으로移轉開業하야 今日에至하나 群山에서 齒科醫學士로서는 氏가嚆矢인同時에 또한群山齒科醫院으로서도元老格이다

그리고氏는德義가잇고 仁慈함과技術이남달리卓越함은 自他가共認하는바이다그래서氏는一般의期待에相副키爲하야 方今도늘研究中으로엇지든 氏는群山齒科界에巨大한存在로서 압날이 一層더囑望된다 (寫眞은 黃河雲氏)

臨床의一人者 齒科醫師 李敏五氏

群山府開福町李敏五齒科醫院長 李敏五氏는 忠北淸州의人으로서 大正十年에 齒科醫에뜻을품고 當地道立醫院齒科部에서 實地研究를하다가 同十四年에 群山道立醫院으로轉職 實地習得을하야 昭和七年度에第一部 同九年度第二部에無難合格을하야 昨年六年부터開業하야 現在에至하는바 實地體得十六年間 群山에잇서實로 臨床體驗으론 斷然一人者이다。 또生氏는頭腦가明晳한才士이며 性格이快活淡泊하야 與人對話에늘 好感을주는靑年紳士로將來가有望히 囑望되며 練磨된技術과併進하야 同醫院은압푸로 殷盛하리라한다

(寫眞은 李敏五氏)

營農合理化 熊本農場支配人 柴山鼎氏

柴山鼎

氏는 今年四十四歲의壯年으로서 일즉 長崎縣諫早中學校를 拔群의成績으로卒業한後 即時教育界에奉職하기十年餘昭和二年三月에 朝鮮現株式會社熊本農場開井本場支配人으로就任하야今日에至하엿다 氏는性格이豪俠剛毅 重厚寬大하야 與人對事에 늘信賴件과敬虔한마음을늣기어낸다。

그리고 氏의抱負의一端을엿볼진댄 營農의合理化를 實現하야서 產米增收와 作人生活安定을圖謀하는데잇다한다。

그런데 同農場에서는 昭和十年四月부터 三千餘戶의作人及그家族들의保健을爲하야 慈惠診療所를設置한後 斯界의權威인醫學博士李永春先生을 마지하야 年經常費 二萬圓으로 一般에게無料로 診察及施藥을 한다는바 이는朝鮮에서의 嚆矢로서 一般은 同農場의 診療所施設에 對하야 稱頌이籍籍하다

信託의使命 朝鮮信託會社群山支店長 淺野敬氏談

一、弊社의設立

我邦의 信託의 法制에 關하야 信託會社가 設立된以來 僅僅十年內外의 歲月이 經過함에 不過하나 그間 各信託會社가 財產의 管理運用處分을 委託바든財產總額은 實로十八萬圓에 達하며且逐年激增하는趨勢에잇습니다 如斯한 現狀으로볼진댄 信託이如何히 時代의 要求에適合한 制度이며 且信託會社가 如何히 財產의 保全增殖에 貢獻을하고 잇는가 可히 알주가잇슴니다。 朝鮮에서는 昭和六年에 信託法制가 實施되며 비로서信託制度의確立을봄에이르른것이올습니다 信託會社는 其本質上基礎가鞏固함과 同時에 社會的信認을으듬에 足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은 말할것도업는것이올습니다。 이러한 趣旨에 基하야 弊社는 政府의 特別한 保護와朝鮮銀行 朝鮮殖產銀行其他財界의 各方面의援助에依하야 昭和七年十二月設立되야 其後昭和九年十一月까지 鮮內既設의五信託會社의買收統制를完了하고 當社는朝鮮內唯一의信託會社로되엿것이올습니다。

二、弊社의特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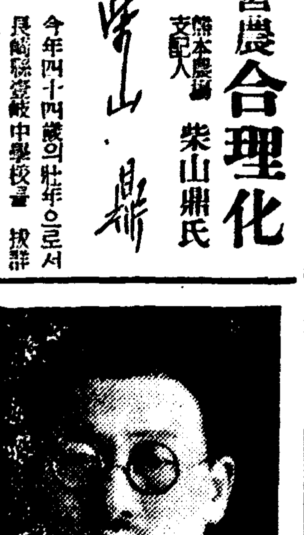
弊社는 資本金一千萬圓으로써 創立되엿음으로 資力의點에잇서서는 朝鮮에잇서 會社中의巨擘을가지고잇슴니다。

(가)弊社는政府의特別한 保護를맛고잇습니다。 즉、每年金拾萬圓式의補助金을受하게되야잇슴으로따라서株主配當이라던가委託者의收益配當은他信託會社에比하야월등히高率로되야 잇슴니다。

(나)弊社는 朝鮮銀行、朝鮮殖產銀行의二大特殊銀行을 大株主로하고잇슴니다。即、兩銀行에서 當社株式의大部分을所有하고잇슴으로 事業經營上特別한協調를 할수잇는便宜가잇슴니다

弊社金錢信託은信託金額도信託期間도가장寬大하게定하야잇슴니다 即 金額參百圓以上信託期間一年以上으로 定하야 內地金錢信託의 金額五百圓以上期間二年以上으로 定하야잇슴에 比하면隔한差異가잇습니다。

(라) 一、金錢信託에는第二種所得稅(百分之二)와 資本利子稅(百分之二)바게課稅치를안슴니다 이點으로만도 內地의 信託會社에의 金錢信託에比하야 가장有利하다고 생각함니다 (內地에서는 第二種所得稅百分之七、五 資本利子稅百分之四、合計百分之十一、五) 如斯히 弊社가 數多의特典을 가지고 內地에잇는 大信託會社와갓치 各種信託의 受託機關으로서 充實한組織下에 諸賢의 期望에 應하라하오니 弊社의特長을 諒察하시고 多少를不拘코御利用하야주시압을切望합니다



正直과誠勤으로 製藥의大成功家 沈學允君

淋疾에 斷然効能으로 팔이는 退淋球

創製者는 滿天下諸氏의게 率直히告白

❶退淋球는廿五年間經驗之結晶 創者는大正二年부터十五年之間花柳病學大王 米國醫學博士파다ー존氏의게 實地實習中多數患者의게 世界各國有名藥品으로 各樣分量으로屢試驗한經驗處方으로又다시 自開業十五年間研究에加研究하야 最近許可藥으로多數患者를救한最摘한 妙良藥이며服用者의게 大賞讚밧습이다

❷退淋球난獨逸產 高貴藥原料

❸本劑는止膿鎭痛 殺菌、利尿 (十萬倍殺菌作用) 配合劑임으로 淋疾深部病原을撲滅식히난 良藥

❹本劑는胃臟腎을 小許도害롭게 안코 効力迅速함이第一자랑거리 右四大作用으로因하야 服用一二回부터男女淋疾에特効가有함이다

❺本劑는他誇大廣告本位藥과난 根本的으로相違藥이되오니

❻他藥으로만이속히신 人士라도又一次 속히신다하시고此廣告보신 即時로試用하시요

❼淋疾始發男女諸氏는 더욱지체말고 亡國的인淋毒의禍을 退淋球로撲滅하시요

❽退淋球난良藥으로 原料高價에比하면 世界無比에大薄利藥이됨이다

❾【注文方法】 朝鮮滿洲國內에限하야는 先金注文에난送料本舖員하니 某條록振替送金하시고 領收證同封入注文이면 藥을속히 밧삼이다 代金引換을願하시면送料先送하시요

主治効能

男女急性淋疾
男女慢性淋疾
男女膀胱炎
睾丸炎
淋毒性子宮內膜炎

藥價	
二日分	•60
四日分	1•00
八日分	1•80
十九日分	4•00

●大募集 各地一手販賣店大募集中志願店은 三錢切手添付案內書及申込書請求하시요 許可

群山府榮町二丁目 退淋球外二十餘種製造 本舖 沈藥房 責任製劑者 沈學允 電話 一九四番 振替京城 一二八〇七番

各地一手販賣店

地	販賣店
全州府	全一藥房 電話四三六番
木浦府	木浦堂藥房 電話一〇二九番
大田府	池田仁盛堂藥房 取次電話五〇番
鳥致院	天佑堂藥房 電話二〇五番
裡里	三枝藥房
參禮	宋藥房 電話五二番
南原	松岡藥房 取次電話一三番
井邑	靈生堂藥房
金堤邑內	李萬成藥房
金堤驛前	姜藥房 電話二四番
黃登	郭熙烈藥房
萬頃	永昌堂藥房
咸悅	林藥房
論山	大昌藥房
江景	南星藥房
長項	昌云藥房
舒川	蔡藥房
吉山	西川藥房
茂朱	中央藥房
瑞山	太平商會

라듸오

十八日(金曜)

◇午後六時 (大)英語講座(四의三) 竹友藻風
◇同六時三〇分 兒童と先生の時間 一、對話、朗讀、唱歌(松本登一、三七頁)一年生 二、朗讀과唱歌、神風(松本登七郎十三課)四年生 漢陽國民學校
◇同六時三〇分 (大)童謠劇(第一放送)この道 BKコドモ唱歌隊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珍奇植物이야기
◇同八時 農村講座(二) 第二高普 金峰珏 李新求
◇同八時三〇分 野談 申鼎言
◇同九時 歌謠 一、相思別曲 二、 李月色 文明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落語
◇同七時五五分 (東)浪花節
◇同八時二五分 (東)講談
◇同九時 時事解說

十九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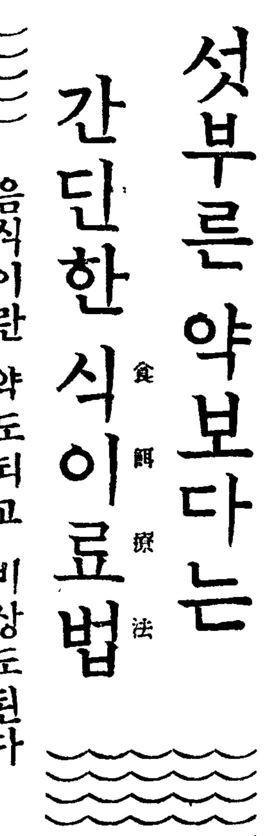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맨도린合奏 六月音樂 一、六月에게…하논作曲 二、六月의하날에게…同 三、白日夢…올리안作曲 四、六月제비…벤스作曲 五、同…브랑스리作曲 高麗맨도린앙상블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乳兒期前後消化不良에對하야 李先根
◇同六時三〇分 偉人이야기 『알렉산더-大王』 辛鳳祚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文化와出版物 金晉燮
◇同八時 農村講座(三) 六月農家行事 第二高普 金峰珏
◇同八時三〇分 漫劇 『流線型春香傳(後篇)全景』 配役 暗行御使…金元浩 房子…金芳龍 驛卒…高龍女 春香…崔英善 서울스레이지、 作曲 李 效果 宋 ...
◇同九時 (東)管絃樂付獨唱合唱(東京音樂學校演奏會)—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獨唱… 소프라노 關川榮子 알토 田中伸枝 테너 木下保 바리톤 薗井貞一 베스 村尾護郞 兒童合唱 上野兒童音樂團兒童 合唱 東京音樂學校生徒 管絃樂 東京音樂學校管絃樂部 指揮 크라우스 프링스하임 馬太受難樂(馬太傳二十六、二十七章에依한受難樂)…빠하作曲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同六時 (城)講演
◇同六時三〇分 (城)하-모니카
◇同七時三〇分 (東)國際放送(日本)
◇同八時一〇分 (東)家庭時間
◇同九時 (東)合唱

二十日(日曜)

◇午後零時五〇分 一、農夫歌 二、달거리 三、蓬山歌 四、제비歌 李秉鳳 張彩瑞
◇同一時二〇分 레코-드
◇同四時 京城
◇同六時三〇分 童話『꼿버선』
◇同六時三〇分 이야기(第一放送)—慶南より中繼—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朱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伽倻琴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同八時三〇分 古談 「그중은두구」 申鼎言
◇同九時 (平) 漫談과雜歌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同一時二〇分 (東)舞臺劇
◇同七時三〇分 (東)落語
◇同九時 (大)物語



섯부른 약보다는 간단한 식이료법(食餌療法)

음식이란 약도되고 비상도된다 중요한 료법의 멧가지

우리의 살이니 피니 하는것도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빼아서 되는것이 아니겟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까지는 그 먹는 음식물을 딸아서 잇든 병이 낫기도 하고 업든 병이 생기기도 할것이 아니겟습니까? 옛말에 감기도 밥상아래로 나려 간다니 그것은 밥만 잘 먹은 다음에는 감기도 제절로 업서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야 한밀에 감기뿐이겟습니까? 물론 어떤 병이고 음식물로부터 밧는 영향은 절대로 큰것이 사실입니다. 하다 못하야 신경쇠약까지도 음식물로 치료해 본다는것이 결코 전연 불가능한 일은 아니올시다.

요사이 음식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식이료법(食餌療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멧가지를들어보이겟습니다.

(一)과식료법(過食療法) 위장에 해가 업슬만큼 가로리가 만흔 음식을 먹는 것이니 신경과민(神經過敏)으로 아래ㅅ배에 힘이 업고 조금만 해도 잘 놀래는 사람이나 또꼬치꼬치 말러서 뼤에 살이 붓지 안한 사람들의 치료ㅅ법입니다. 한꺼번에 만히 말고 먹지 말고 하로 다섯번이고 여섯번이고 자조먹는데 그 먹는 종류는 되도록 지방분 당분가튼 것이 만히 포함된것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나 생선의 지방보담 빠다, 닭알노란자위, 크림치스의등속의 지방이 조흡니다. 그러고 넘어 기름진것은 고만에 구미를 깍는 만큼 그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二)탈지료법(脫脂療法) 우의과식료법과는 정반대로 음식을 조금 먹는것이니 머리가 흔든하고 신경이 둔한 사람이나 …… 살찐 사람들의 치료법입니다. 되도록 음식의 분량도 적게 하려니와 또 만히 먹더라도 카로리가 만치 못한 것을 먹는것이니까 지방분이라든지 당분가튼 것이만히 포함된 것은 절대로피해야 합니다. 위선 밥은그전보담 반쯤 먹고 다른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다른것이란 야채、과실、버섯 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三)채식료법(菜食療法) 채식료법은 글짜뜻 그대로 육종이나 생선을 안먹고 채소 이외에는 닭알、우유등만 먹는 것입니다. 상기가 잘 되고 견비통이 잇고변비가되기 쉽고 숨이 놀가쁘고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의 치료법입니다.

(四)알카리료법(療法) 위장에 들어가서 산(酸)이 될음식을 일체로 피하는것이니 채식 료법과가튼 효험이 잇는이외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에썩 조흡니다. 그 역시 육종이나 생선보담채소、과실을 주장으로 먹되 과실에도 산이만흔것은 재미업는동시 육종이나 생선을먹을때 채소를 그사오배만먹으면관계치 안습니다.

(五)절식료법(絶食療法) 하로고 이틀이고 내지삼사일이고도모지 음식을 끈는것이니 위장병에는 되지못한약보담도조타고들 떠듭니다. 단지 절식을 하얏다가 다시음식을 먹기시작할때 조금만 주의하지안타가는 도리어 위장병을 사지말란법이업습니다.

"고흔자태원커든 수영을하십시요"

따이빙은최고의『근대미』

뭐니뭐니해도 스포-츠운단련되흉체는 근대미(近代美)를 말할때에 한가지자격으로 들게되는것은 여러분도 잘아실줄압니다만 미국의『자-네트·뮤-러』라는분은『아름다운스타일을 희망하는사람은 수영을하서요』하는 글을써서 어여쁜미국아가씨네들에게 널리부르짓고잇다합니다.

수영을하면 몸에균정미(均整美)가생긴다는사실은 새발견도아니고 모것도아닙니다만『자-네트·뮤-러』녀사는 해마다 부자들이 만히 모여드는『마이아미』라는 해수욕장에서 수영교수로 직업을삼는사람인데 여사에게서 수영을배운 만흔여성을 가운데는『모델』이나『매니킨』이되어 뽑핀사람이며 또해마다『미스·아메리카』로 보자가 생기는……어쨋거나 손꼽이펴진 일종의자태미의제조업을하고잇는사람이라고 볼수도잇습니다

그건그러타하고『뮤-러-』녀사의말을 인용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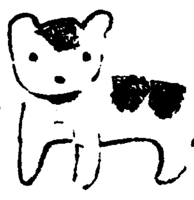
『모든 스포-츠가 건강미、육체미의 점으로보아 매한가지라고 보겟지만 자태미를 노코본다면 어느스포-츠라고 다 똑가치 조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태는 건강미요 육체미인 동시에 정조미(整調美)이며、더나아가『리듬이칼』한데에까지이르지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말로 자태를바라는분이잇다면『무용을배웁시요』하고 옛에는 이러케권햇섯습니다, 무용가의 아름다운자태는 테니스나허키-만하는사람에게 볼수업는 어디까지나 양동미이며 정조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아는바와가치 무용을 배우는것은 용이한일이아닙니다. 그리고 무용가운데서 자태미를어들때까지 공부하자면 일조일석의일이 결코아닙니다.

그러치만 수영은 회연치는그것이 자태미의형식에의해서 실행되는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제일빨리 자태미의목적을 달성할수잇는것입니다. 자태의모든유정을취하는 스포-츠、그뿐더러 물속에서회엄친다는것은(더구나 바다물속에서)객적은 비게살이 빠지는 부작용까지잇스슨축 밥울적게먹는다. 약을먹는다 굶는다해가며 덜룩통할라고 애쓰는사람에게 매우조흔운동이아닐수업습니다.

나는 웬만치수영을 가르키고나서는 꼭따이빙을식힙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바와가티『따이빙』할때의그고흔품은 최고의근대미라고하며 이스포-츠는 하편으로 자태의교정술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닐겝니다.



長篇小說 **찔레꼿** 【60】 金末峰作 金熊超畵

황금보다귀한것(二)

그리고 또이틀이 지나갓다

이틀동안 경애는 눈이감도록민수를 기달렷스나 웬일인지 그는 첫날다녀간후로는 그림자도 다시비최지안는것이다

퇴원을해도 조타는 담당의사의의견을듯자 경애는 햇비닭이가티 명랑하게 자기집으로 도라왓다

집으로도라온 경애는 어머니보다도 동생을보다도 그는 정순을 차젓다 복도로 나오는정순과 마조치자 경애는 달려가서 두팔로 정순의 목을안엇다

『정순이――』

이한마디속에는 경애의 심장을 짜는듯한 모든참회(懺悔)가 숨어잇는것이다 경애는 두눈에서 눈물이 자르르흘르듯 하면서도 종체로 눈물이 나오지안는 자신이 이상스러웟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눈물로 표현할수잇는것은 여자만이 가질수잇는 특권일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도 경애는 남보다 한숨은 만흐면서도 눈물은 거의업는 자신을 또한번 발견하는것이다.

어머니이하 집안식구들의 인사가 끗난후 경애는 정순을데리고 저기방으로갓다.

단지며칠동안에 겨울가티 쌀쌀하고차가웟든경애가 봄바람가티 고맙고 부드러워진 리유가 어데잇슬가 생각하고 정순은고개를 끄덕엿다

사람은 역시 생사의경지(境地)를 왕래한뒤에라야 겸손하게되는것인가

정순은되도록 단순히 해석하려하였다 그러나

『정순이옵바 주소가 어덴지알우?』

하고 경애가 빙그레 우슬때

『옵바』

하고 정순은 일순 어리둥절하지안흘수업섯다.

경애는 잠간동안 잡자코안젓는 정순을 바라보면서

『호호호 저、민수씨말야 외사촌옵바는 옵바아닌가? 머』

조만호씨 아페서 일시적 변통으로 외사촌옵바라고 대답을하엿든것이 지금당장 경애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밧고보니 정순은 약간거북하여젓다

『영환씨말이 효자정이라고 그리는데 번지는 모우러밧다나 바……민수씨는 내생명의 은인이 아니야? 그래서 조차저뵙고 인사말씀이라도 해야겟서 그러치?』

하고 경애는 달려드듯 정순의 두손을 잡아흔든다

정순의맘은 비로소 술리하사 형한이 느끼는 어떤 자랑스러움이 공작의나래가티 찬란하게 깃을펴기 시작하엿다

『건넌?』

『정신?리두 흔시 놀러가겟다 고? 지정×× 번지 하숙집에 잇는데요 외려차저가시면 오지말라면 믈걸요』

『건넨 그럴가?』

『지저분하게 느려노코 잇는방을 남에게 보이기실흔게조호호』

『그럼 정순이 우리두리 살그머니가서 습격을해봐요용? 꼿을사가지고용?……건데난아주 썩재미잇는 선물을하나생각해 두엇다누』

『선물요?』

『그럼 생명을내노코 낡구원한그이에게 선물을 아니드린다면 그럼난머 증생이되게?』

『호호호 선물을 꼭드려야만조흔건 또머야요 물건보다도맘으로 서로 친해가는게 외려더나흔것 갓는데요』

하고 태연스럽게 말을하면서도 경애가 참으로 훌륭한선물을 보내서 민수가 만족해하는모양이 보고도시펏다

경구는 회파람을 불면서 자기서재에서 무어인지 부즈런히 등사를 하고잇는것이다 와이샤쓰 소매를 팔뚝까지 거더부친채 고개를 수굿이하고 등사판을 밀고잇든 경구는 잠간허리를펴서 창문으로 드려오는바람을 밧는다

『농부는 지주(地主)다 땅을갈아거기서 곡식과 채소와실과를내놋는 농부야말로 땅의주인이 아니고 누구냐…』

영환은 눈을돌려 방금 깜아케먹을바더 선명하게 글자가 나타나는데로 죽-읽어보고 그담장을 다시 등사판에 너혓다

『조선을 먹여주는사람 조선을 이펴주는사람 그라고 조선을 구원해줄사람은 오즉농부뿐이다 그들의손에쥐인 호미와팡이야말로 팡야에서 마나를 내리오게한든 모세의 거륵한지팡이가 아니고 무어냐……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근심과불행에서울고잇슬동안 조선천지에는 영원히 팡명이 업슬것이다

여기까지 읽을때 언제드러왓는지 살그머니 경구의두눈을 가리워버리는 손이나타낫다

『내알지 경애안야?』

『난 경애 안야요……』

하고 짓굿 목소리를 굵게내다가 깔깔우서버리고는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모양으로 경구의 눈아페 달겨드는 얼굴은 물론 경애엿다

『오빠! 손님와서요 저기보아요』

하고 가라치는곳에는 작약(芍藥)처럼 환하게 웃고서잇는 젊은여자가 눈에띄웟다

『윤희 안야요? 오빠』

『오 참그러시군 윤희씨 그새 안녕하섯습니까?』

『오시는시간을 몰라서 정거장에도 못나가뵙고 참말미안스럽게됏습니다

『천만에말슴을……』

경구는 등사기를 손에쥐채로우두머니 서잇는것을 보자 윤희라는 팽장하게 첨단으로몬의가노히 남빗치마를 입은여자는

『무척 바뿌신 모양인데 그럼 여담에 또오겟습니다』

하고 도라서나오려한다

『네、오늘만은 좀용서해주십시요 약속한시간까지 일을마처나야되겟기에』

하고 경구는 머리를 긁는것이다.

『가만잇서요 내가서 썩훌륭한 조수(助手)하나를 불러오조』

하고 다람쥐모양으로 충충대아래로 사라젓다 이윽고 경애에게 손목을 잡힌채 수집은듯어 우스며 드러오는이는 정순이엿다.

『오빠 정순이에게맷기고 아때 좀으로내려가요 윤희씨에 휫게 갓다는 못속보세요』

安産

키爲하야!

楢林醫學博士 監查
片瀨醫學博士 推奬

カルシユーム時代를建設하라!

自古로 難產에는 高價인鹿茸가루를 服用하엿사온바 此鹿茸의 主成分은 カルシユーム이외다 ワタカルシユーム錠은鹿茸과한가지로カルシユーム를主劑로하야 거기에 數種의 高貴藥을 配合한것임으로 姙婦와產婦가 이약을 服用하시면 安產은 問題업시됩니다 俗談에 產婦가 產室에들어갈때에 自己의신어든 신을도라보며『저신을 내가 다시 신게될가?』하는人生最大의 걱정은 問題업시 解消됩니다

健全한玉童子는!
健全한母體로부터!
健全한母體를맨들기爲하야는—母體의健康素로도되며、胎兒의發育素로도되는
ワタカルシユーム錠의連續愛用이安產秘訣의第一急務

片瀨醫學博士述『安產키爲하야』란冊子無代進呈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ワダカルシユーム錠

와 다 가 루 슈 ― 무 정

皮膚病退治에

압흐지안코、쓰리지안코 藥効가 持續的으로浸透하야 深部의病菌을죽이는優秀한皮膚病藥『一二三』을愛用하도록推奬합니다

主効
쇠버짐、음진、무좀、습창、흔듸옹、어루레기、마른버짐、부름、딱띠、진부르매、습진、頑癬、凍傷、火傷胎毒、구두에다친대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各地藥店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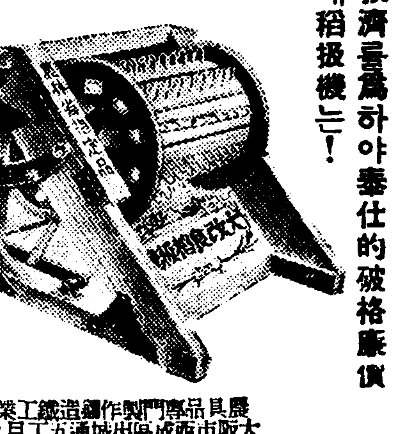
皮膚病退治에 外用常備藥

一 二 三 히 후 미

東京神田明神下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二三七番

No.6

洗はすぐ落ちる 素早が染
ナイス 나이스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實用的이며最新式인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但定價半額以上先送注文者에限하야出荷함)
組立 一人用 二人用 一臺 (特價十九圓 二十一圓)
農具專門製作鑄造鐵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 二六四一 二一六二 振替大阪一九九六一

好機!
印章과 여름의裝身具 夏季特賣中 (型錄呈上)
山梨縣大河內 山.水晶株式會社

東洋劇場

▲特別興行▼十七、八兩日、午後七時開演 …大阪吉本興業合同一座公演 ……

六月十七、十八日 東洋劇場 十九、二十日 府民館 一日부터 朝鮮聲樂研究會公演

特告 六月十六日 府民館 東洋劇場 朝鮮藝壇短期公演二十

▲上演劇本▼ 歌劇片時春

明治座

6月12日ヨリ 上映時間表

京日世界ニュース 12の24	11•00	2•49	7•00
奥樣に知らすべからす	11•12	3•01	7•12
朝日世界ニュース No. 168	12•17	4•04	8•17
旅の陽炎	12•34	4•31	8•34

午前11時迄早朝御優待サービス

六月十二日부터大封切! 그映畫製作所提供全發聲大名畫 新しき土 아놀드팡크·伊丹萬作協同監督 原節子 小杉勇 早川雪洲 英百合子 市川春代 루도베루·라·高木永二 共演

優美館

電光三九五 鐵町

◇十六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三回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 밤七時半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三大傑作名畫封切)

◇FOX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テムプルのお目出度う 監督 아란크가만크쓰氏 主演 샤리템플 오래간만에 낫나난驚異的인當年六才의最高人氣者템플의映畫를잇지마시라!

◇POL超特作オールトーキ現代爆笑劇! エノケンチ千萬長者續篇 監督 山本嘉次郎氏 榎本健一 一人十役의最初爆ノ大人喜活劇을見失마시라!

◇甲陽映畫社超大作品ネオスーパー版! 迷の黑頭巾 監督 高見貞衛氏 主演 羅門光三郎氏 若月輝夫孃

大豫告 巨匠빅터사비-루氏監督 英고-몬社超特作全發聲 風雲의殿羅巴 죠-지아리-스氏主演 그라듸-그쿠-파孃助演 發聲洪吉童傳前篇進め龍騎兵良人ノ貞操前後篇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六月十六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二回上映…낫一時밤七時半始映!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朝鮮젊은 男女에게밧치는大傑作名畫!)

◇大邱映畫社超大作싸운드映畫 文藝映畫 純情海峽 原作…咸大勳 監督 尹炳斗 主演 金一海 孫一圃 金德心 金映玉 全八卷

新鋭串敬均과梁世雄의첫콤비로製作된異色映畫! 今日의靑春들의複雜한生活面을가장如實히描寫한叙情篇

◇獨逸우파社超特作日本版 大雄篇 잔다-크 全十卷 監督 구스타프·우치키-氏 主演 안제라·사로-카孃 愛國의至誠에서날뛰는男裝의美少女『요안나』의生涯! 이것은狂熱과悲壯의大名畫로움어시는모든大傑作!

◇マキノ超特作全發聲映畫 時代劇 東朝怪猫傳 監督 坂田重則氏 主演 葉山純之輔 日登江

桃花劇場

(光)二三三番

中部版

農繁期의開豐郡에 普校兒童缺席激增
公私立의就學數三萬三千中 每日平均九千餘名은缺席

【開城】일면일교제가 완전히실시된 개풍군관내 십오면에잇는 공사립 초등학교에 통학생수는 작년말현재로 평균 출석수가삼만이천구백십칠명이라는데 그중매일 평균 결석생수가 놀라지말라-남자가 팔천오십칠인 여자가 일천팔백사십오인! 합계구천팔백칠십육명이라한다

이것은 즉 전생도수의 근삼분지일가량이 학교에 일홈만걸고 제대로 배우지못한다는 사실을 수자로 증명케되는바요즘가튼 농번기에는 학교를 전폐하고 한사람의 역군이되어 팔을비고 김을매지 안흐면 안되는때문이다 이처럼 반농반학(半農半學)으로 학교라고 단인댓자 도회지학생과가티 공부에정신을 통일시켜 체계잇는 공부를 못할것이니 실로한심한것은 농촌교육의 현상이라고아니할수업다

病든豚을屠殺 隣人에게密賣

【開城】개풍군 령북면 길수리(開豐郡嶺北面吉水里)륙십오번지 최복숙(崔福淑)(三一)은 지난이일 오후여섯시경 병드러 죽을려는자 기집도야지를 몰래잡어가지고그 고기를 동리에거주하는 내지인 영전십랑(永田十郞)에게 수륙다섯근 황종석(黃鍾石)에게 스물네근 정완섭(鄭完燮)에게 다섯근 합계오십사근을 매근삼십전식받고팔어먹엇는바 지난십륙일 이사실이 그곳경찰서에 탐지되여 가축전염병예방령(家畜傳染病豫防令)위반죄로 유치장신세를 지게되엿다한다

七十老翁自殺

【金浦】김포군 양촌면 수참리(金浦郡陽村面水站里)리규근(李奎根)(七○)이라는 로인은 지난 십사일에 부근 송림속에서 목을 매여 자살하엿다는데 그 원인은 항상 생활난으로 고통을 바더오든중에 설상가상격으로 수년전부터 불치의 신병까지 겸하게되여 얼마남지아니한 여년이나마 호구할 도리가 전혀업스므로 모든것을 비관끄테 와가티 자살을도모한것이라한다

大阪에서仁川까지 少女職工을誘拐
大阪某署手配로仁川署嚴査

【仁川】방금경성서대문경찰서에서 소녀유괴마를 체포하고 엄중취조하든끄테 검거망은 인천까지확대되야 경찰의이목은가장 예민하야지고잇는이때에 또한가지놀라운 수색원이 인천서에제출되얏다 어느대판(大阪)모제사공장의 소녀직공 황필시(黃必是)(一七)를 부근불량배가 꾀이여 인천까지 기선으로떠나간흔적이 잇다하야 마참내동공장에서 인천서에 수색원을 제출한것이라는데 이것역시방금조사중인 유괴사건에 관련하지안헛는가하야 엄중수사중이라한다

鞦韆하다落傷 二十少婦重態

【春川】단오(端午)날을 질겁게 보내려고 그네(鞦韆)를뛰다는것이 잘못되여 떠러저기지고 중상을당한 젊은부인이잇는데 이는 춘천읍내(春川邑內) 춘천약국(春川藥局)에서 일을보고 잇는 유일성(劉日成)(二一)씨의부인 리명숙(李明淑)(二○)으로지난 십삼일(端午日)오후한시경에 도청뒤편에서 그네를뛰다가 떠러저 중상을당하엿슴으로 사방에 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원체중상으로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安城安靑學校에 現金五百圓喜捨
趙俊女史의美擧

【安城】안성군안성면동리(安城面東里) 조준녀사(趙俊女史)는 지난십륙일 그사위차중섭(車重燮)씨를 통하야 그곳사립안청학교에 현금오백원을 자진기부하엿다는데 조준녀사는 고박영대(故朴永大)씨의미망인으로 재작년 구월에 박씨가 작고할때에 애통한중에 망부의 유지에 조차 현금사천원을 내여가지고 각방면에 기부한일이 잇섯는데이번에 또 전기안청학교가 재정이곤난하다는 소문을듯고 그와가티 자진기부하엿다한다

道路工事完了後도 建築許可는遷延
鷺梁津、永登浦間의큰問題로 當局의無誠意를非難

【永登浦】소화칠년도부터 수년동안경기도(京畿道)당국에서는소위궁민구제사업이라고하야 경인도로(京仁道路)의 개수공사를일으키여 제일착으로 로량진(鷺梁津)과영등포(永登浦)간의 도로개수공사를 실시하고 계속하야인천(仁川)까지의 일등도로를 전부개수하야 지금에는 포장까지완료되엿는데 이공사를 실시한결과 로량진영등포간의 시가지에는시가지의도로부지가(道路敷地)군대군대잇서서 거기로점하여잇는연고자들은 공사가 준공되자속히고저 도당국에 도로부지대부원(貸付願)또는양여원(讓與願)을 제출하엿스나 당국에서는무슨까닭인지 그공사가 끗난지사오년이지난 금일에 이르기까지한건도처분치안어서 대경성의도시미관상으로보드라도 그체재가대단히보기실흘뿐아니라시가지의발전상 큰지장이되여잇는터인데근일에는 이공지를 리용하야장막을둘치고 싸구려 장사들이한판치는터로 연고자들의 손해가막대하며 떨어서 우편소전차대합소등의 건축을위하야는 대부와 양여를하면서도 연고자들이 제출하는 대부또는양여원은 일률로불허가 주의를 쓰고잇는것은공연이 땅갑만작고 올려가지고주민의부담을 과중히 시키자는만면적수단에 지나지못하는것으로너무나 주민의 리해관계를몰리해하는 무성의한 태도라하야일반의 비난이 날로노파간다고한다

經營難의兩劇場
龍山劇場은賣身하고 梨花劇場은不得已永久閉門

【京南】경성남부일대 십여만주민들에게 둘도업는 오락장으로 총애를 바더오든 룡산연건너편에잇는 룡산극장(龍山劇場)과부내 리태원정(梨泰院町)에잇는리화극장(梨花劇場)이 경영난에빠저 영영문을 닷게되여 뻗어나는 조선인계(鮮人界)에 크나큰파문을 던지게되엿다 전기 룡산극장으로 말하면 조선의흥행계가 말할수업시 저급하든시기에 한 이십년전에 현재장소에설립되여 이래수만흔 예인(藝人)을 조선연예계에 배출식혀서길른극장으로 한동안장안부민들에게까지 만흔총애를바더오든터로최근에와서는 약초극장(若草劇場)명치좌(明治座)등외화스크린의극장들이 진출됨에 반영을비례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로패잔영난에 빠저드러가 할수업시오래동안 경영해오든 부내주교정(舟橋町)원중욱기(元重旭)씨에게 권리전부를 인계식혀준바최근에와서 일봉짓는 어물도한 본권번(本券番)에 매도하야 그를허러다 삼월(三越)뒤에다 본권번직속연무극장(演舞劇場)을 설치키로내정되여 룡산극장으로는 영영폐지식히고말엇다한다 도리화극장은 본시가설(假設)허가로 경영해오든중 그여경영난으로 지난사월부터 폐관식히고 말엇다한다

乳兒버리고 情夫와逃避

【仁川】강보에싸인 옥동자에대한 모성애도바리고 금슬조흔남편의 애정도바리고 정랑과도주한바정녀가잇다=군산부 영정(群
사랑을 속삭이든정랑과 인천방면으로 연애도피행각을 하얏다 남편은 변심한안해의 소행을미워하야 차저볼생각은업스나 강보에서 우는어린것을생각하야 울며겨자먹는격으로 안해를차저 달라고수색원을 인천서에제출하얏다한다

今曉、仁川에大火
中國人理髮館에서發火 損害는七萬餘圓、十戶全燒

【仁川】십팔일오전오시경 인천부서경정(仁川府西京町)이백사십번지 중국인리발관 전곤림(傳坤林)의방에서 발화하야 좌우십호를 전소식힌후 약이시간만에 진화하얏다는바 전소가옥은 다음과갓다한다

仁川府西京町二○三 傳坤林 同 千街會 同林基義 同都興和 同 王奎 同邢雲會 同事可興

어상은전소되고 그외에 장석원(張錫源)씨상점과 고물상조향은 전반소되엿다하며 손해는약칠만오천원에 달한다는바 발화원인은 전기리발소 점원 일홈모르로에 물들다리다가 폭발하야전기와가튼피해를 입게하얏다한다

故鄕와서獨唱會
新進聲樂家吳應哲君 十九日開城支局後援으로

【開城】개성이나흔 젊은성악가 오응철(吳應哲)군은 오는 십구일 오후팔시부터 본보개성지국 후원하에 향토방문 독창회(鄕土訪問獨唱會)를 개최키로되엿다 장소는『만월공립보통학교강당』이라는데 이날특히 찬조출연으로 김명자(金明子)양의 피아노반주와 리전동창회(梨專同窓會)의 합창단이 출연하야 더욱 이채를 보힐것이바 일반의인기는 벌서 고조에 달해잇다한다

發展하는仁川에서 쪼껴나는土幕民
移轉費로每間十圓식에解決된 道立醫院基地의住民

【仁川】작금인천은 공장의진출과 도시계획선으로 비약적발전을보고잇서 재벌가에는 맛는바해례이 비밀비제하나 세궁민층의빗는바 그비애는 가장크고잇서 방금문제중에잇는 화수정(花水町)해안어벽이 부근에는이천을비롯하야 방금문제화하고잇는 구역이 사계소나되여잇다 그중에도 가장부민의여목을 이끌고잇는 도립의원기지 화정(花町)이정목이십이번지 일대의 철거문제십팔호에대하야 그귀착이 주시되든바 지난십팔일 마친내주민일동은어굴하나마 눈물을먹음고 "매간"여전비 십원식을밧고을인까지되엿다 그러는 그들이이전하야갈 안주지는 어드멘지 우려되는바이나 또한 문제중에잇는 이백여토막민은 어전비조차바들도리가업다하니 그전도가 가장참담한 현상이라한다

鐵軌窃盜犯被捉

【京南】부내 보광정(普光町) 이십사번지 김봉순(金鳳順)(二○)은 룡산 공병대(工兵隊)소유 동빙고(東氷庫)창고에서 레일두개를 절취하야 지게에다 지고 십칠일오전칠시경에 종로로 팔으려는것을 동대문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엿다

衾枕갈피에숨겨둔 大金든紙匣紛失
永登浦署에嫌疑者被捉

【永登浦】시내영등포정(永登浦町)사백이십삼번지 전전정일(前田正一)은 십오일 부산재주시에 경영하는 음식점을 고산모(高山某)에게 양도하고 그대금일천칠십원을 휴대하고 시내원정(元町)을거처서 전기주소의 소전(小田)의 세집을 비려기지고집세로 일백이십원을 지불한후잔금이든 지갑을 그안해도모(トモ)(四二)에게 맛겻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갈피에너코 취침한후 이튼날아침에 기상하야 부엌으로나간사이에 이것을모르는 남편정일(正一)이는 그대로 이불을 뒤마당에 들고나가 태양에 쪼이고저 빨내줄에 너러노앗섯는대 이것을본 도모는 깜짝놀라 뛰여나가서 지갑을치저보앗스나 임의지갑은 간곳이업슴으로 새파라케 질려가지고곳 시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계출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시간을옴기지안코 사법주임(司法主任)의 지휘로 동가를중심으로 부근을 엄중탐사한결과 수사를 속행한결과 십칠일 오전구시에 이르러 대중부장(大重部長)과문형사(文刑事)의 예민한활동으로 시내신촌정(新村町)이백오십륙번지 노동자 리상선(李相善)의처리공님(李公任)(二三)이가이불을 너릴때에 떠러진지갑을집어다가 자기집안 방장속에감추어 둔것을전중하야 검거하게되엿는대 목하 동서에서는 부족금에 대하야엄중히 추궁하는중이라고한다

明日로迫頭한 畿湖蹴球大會
抽籤으로出場順序도決定 賛助金도續續遝至
(永登浦支局後援)

【永登浦】아프로 하로밧게남지안흔 본사영등포지국(本社永登浦支局)후원의 제사회 기호축구대회(第四回畿湖蹴球大會)는 기보와가티 지난십육일로써 신청을마감한바 참가단체는 모다 수효가 조선에서 쟁쟁 자랑하는 우수한팀들로 실력단체인대 실로 일흐후 다섯시에 본사지국루상에서 각팀의 대표들이 진참하야 경기순서를 추첨한결과 다음과가치결정되엿는데대동대회를위하야 찬조금품을 기증하는유지도 속속답지하야 제이회접수분은아래와갓다고한다

義勇 孝勝 龍山健児 血脈 京城고무 日新印刷 新友 삿뽀로 三中井 新光 安養 龍山工作 仁旺 晋光 押安 新活 永靑 永體 素友

賛助金捐出者(第二回分)
▲金十圓 申敬植 崔俊永 中川食堂 ▲五圓 崔基鎬 徐德守 白順披 永登浦會舘 大塚宗三郞 洪承喆 金聚洙醫院 第一醫院 京仁醫院 ▲金三圓 鴻盛樓 鄭鎬淑 金學善 永昌屋 韓昌鎬 麒麟閣 ▲二圓 米油商會 ▲一圓 李貞來 黃癸鎬

京南
第三回 近畿蹴球大會
▲日時 六月二十七日
▲場所 西氷庫普通學校運動場
◇主催 城南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開城
讀者慰安幸運데ー
▲幸運券發行日=七月一日
▲幸運券抽籤日=八月十日
◇賞品 一等 特製洋服地(一人) 二等 레코-드(二人) 三等 卓上時計(四人) 四等 萬年筆(八人) 五等 煙草灰皿(卅人) 等外 쏘마요지(全部)
◇主催 朝鮮日報開城支局

仁川
京仁『럭비』大試合
▲時日 六月二十日(日)午後二時
▲場所 仁川運動場(會費二十錢)
◇主催 仁川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開城
吳應哲君獨唱會
▲時日 六月十九日下午八時
▲場所 滿月公立普校講堂
◇會費 三十錢(均一)
◇主催 滿月公立普校兒童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永登浦
第四回 畿湖蹴球大會
▲時日 六月十九日부터三日間
▲場所 永登浦放送所住宅地
◇主催 永登浦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永登浦支局

수리표우유 ワシミルク
육아보건·최적합
煉乳中에서 제일安全한것은 이것이요

煉乳의元祖 世界的名品 수리의商標에注意하야 주십시요
藥店食料品店에서販賣함
K11-87

으흥々… 탄복く 따는맛이훌륭해…… 아지노모도는 엇떤음식이고 당장맛잇게해주닛가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癩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 事實風病에걸리기만하면 一生을맛치게되는것이다 그러면風病은과연不治病인가 何由오하면從來의療法이란것은 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한다는藥가 無을使用하엿고 療法을알지도못하엿든까닭으로 萬에一이라도治癒된例가 無한것이다 治癒는姑捨하고 적으은効果도보는者가업다 그러나本院은有名한 殺菌劑特히癩菌을溶解하는藥과 도喚菌하는細胞를增進하는補血劑를 配合完成한有名治癩劑를發明하기에至하엿다 故로本病에苦痛받는분은 服用하라 不幾日에本 癩壯チモール丸을 服用하라 効果를發明할것이다 그리고 本劑의偉大한効果를證明할것이다 그리고 本劑는모든지藥局에서 特히肉類와魚類其他一般 던지飮食이업고무엇이던지 食料禁忌하지아니한다
風病의症狀이現된患者에게限하야 癩壯チモール 丸을外上으로 그이니勿失此機하고 곳照會하시오(返信料添付照會)
滋養食物로健康保持하면 速히効果가보다 結節과 潰瘍과痲痺와 斑紋과腫脹 風病의諸症狀이 速히 快癒한다
風病療養法及其他無代進呈 但藥書는不應 大邱府南龍岡町裁判所前
大邱府四春堂藥房院
釜山府草梁町(?) 大邱春堂支店

登錄商標 登錄商標
京城 대륙 고무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鍾路警察署前(營業所)
總販賣部(振替口座京城七五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2)三二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閔氏支配權掌握 明朗·根本更生

禍根一掃、整理斷行、合理經營

東一銀行의今後打診

社會問題化된東一銀行問題는拔本塞源의 更生策으로서 成氏系重役이 그持株四千株를 閔氏系에譲渡하고 勇退함에依하야 內部의派爭은 一掃되고 閔氏系에依하야 支配權을 掌握되고 그財力으로 獨立經營케 되려니와 今後의 東一銀行은 閔氏財閥의財力과世間信用을 基礎로 朝銀의特派陣에依하야 實務를 行해갈것이다專務를비롯하야本店支配人、營業課長、檢査役、庶務課長、出納主任等幹要地位를 朝銀에서占領해가지고 重大不祥事件의 整理를斷行하며 行員間의派閥、陰影한空氣를 排除하는 同時 合理的으로 經營해갈것이라고 期待되다。이로써 오래동안 金融界의 癌腫으로 보이던 東一銀行은 이에 行運을挽回하고 明朗한 雰圍氣속에更生되리라한다 一說은 漢銀과가티 朝銀側에서 入行되지나아니할가하는觀測이 不無한모양이나 東一銀行은 漢城銀行과는 事情이 相異하야 漢銀은 大株主가 朝銀이나 東銀은 絶對大株主가 閔氏로서 그財力이基礎인點으로보아 아모리 一流人物을 入行케한다드래도 即時로頭取로할수는업고 當分은 專務補充에 止할것으로보이며 將來라도 閔氏보다 上位로할수업슬것이다 或은 閔氏頭取

最高地位는 依然히閔氏

東銀의 整理案으로서 朝銀特派陣入行에 依하야 一部에서는 朝銀側의副頭取는 想像되나 普通銀行에 副頭取制도 過함으로 그것도實現性이적을것가다한다

後任專務는 河口氏有力

朝鮮銀行으로부터 東一銀行에 들어갈 專務는目下 向井大阪支店長說 河口大連支店長說 古田東京支店長說等이잇스나 모든點으로보아 河口寅氏가 거장有力하다한다

不祥事件의 實損程度 推測보다輕微

東一銀行專務 市川眞次郞氏는 勇退키로 決意하고 去四月二十日 任期滿了를 機會로 辭表를 提出하고 事實上退職게되엿는데 同氏는 十七日午後四時 銀行集會所에서 記者團과會見하고 東銀內容에對하야 詳細說明하고 心境을披瀝한바 잇섯는데 그要旨는 大體如左하다

再三不祥事件은 遺憾千萬이나 銀行의實損은 世間에서推測하는바와가튼것이아니오 意外로적다。이것도 補塡整理對案이잇스므로 銀行信用에는 念慮가업다。新重役陣에依하야 整理가進捗되면 東亞有數한銀行이될수잇스며 銀行內容에는 遜色이업다

行員層에는 不安이업다

東一銀行 整理案에 依하야 成氏系重役이 勇退케되엿슴으로 兩銀行系統行員은 不安을 感하기도하는모양이나 財務局、朝銀、東銀三者가 整理案을 協議할때에 明白히 行員의 異動은하지안키로 確定하얏슴으로 行員에게는 아모 危懼가 업스리라한다。

現地調達方法으로 保證準備擴張急務

資金難打開의根本策

朝鮮이 當面한資金難의 現實은 그深度가커서 現狀대로推移할時는 朝鮮의產業開發遂行上重要影響을 將來하게슴으로 別項과가티 預金部低資引出을 策코잇는데 그根本策은 朝鮮銀行券의 保證準備擴張이다 이는 資金의 現地調達方法으로 重視되나 大藏省의事務關係로 그時急을認하면서도 特別議會에 上程할수업서 問題라한다

殖銀社債取入難으로 預金部低資引出

產業資金圓滑融通策

朝鮮內의 金融界는 硬化의兆가去益顯著하고 그中 產業資金의需要가 旣盛함에도不拘하고產業金融의 主體인殖銀이 社債의取入의 困難으로 圓滑한 產業貸出에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업다고할수업서、總督府에서도 朝鮮內產業의 發展上 事態를 憂慮하고 이金融硬化를 緩和식히는 意味에서 預金部資金의 融通을 바들方針下에 過般來 西崎理財課長이 渡東하야 預金部와 折衝中인데 總督府로서는 公共資金產業開發資金이란 名目下에三四千萬圓의 融通을 要求하고잇는 模樣인바 公債引受를爲한資金枯渇을 憂慮하고잇는 預金部가 果然 이를 容認할는지 그與否는 아직 疑問되는바가만흔데 結局 朝鮮의 現狀에 鑑하야 어떤程度의 低利資金引出은 確實하다고 關係方面에는 크게 期待하고잇다

證券移轉稅

朝鮮側重課問題化

有價證券移轉稅法의 解釋으로法域外인 朝鮮及 外地의 證券賣付에도 六月十五日부터 徵稅가 決定되어 그解釋의 當否가朝鮮에서도 問題化되어잇는 이때에 다시 大阪及東京의 入電에 依하면 右外地課稅의 內容은 法域外이기때문에 極히 不利한 條件으로 高率의 稅率을 負擔치안을수업는것이 明白하게되어 朝取證券部取引員組合、朝鮮取引所에서는 猛烈한 反對運動이 惹起되고잇는바 어 稅率에는 如左한 差違가잇다 即

	第一種	其他
長期	萬分之二	萬分之八
實物(市場經)	萬分之四	萬分之四
場外實物	萬分之八	萬分之八
國債證券	萬分之一	萬分之四

그런데 朝鮮及外地의 仲買人取引員은 法域外이기때문에 第一種이라고 認定되지안코 一般客側과 同一한 取扱을바더 萬分之二에對하야 萬分之八의 賦課를 要求하고잇서서 現在 十五日以降의 取引에는 課稅되고잇다 이課稅는 稅賦課의 當否에問題가 잇는바 이不當課稅인만큼朝鮮側에서는 事態를 重大視하고 總督府를 動하야 大藏省과 折衝하야 反對運動을 大大的으로 喚起할 意向인데 賦課가 不得己하다하드라도 第一種外의取扱은確實히 不當하다고보고잇다한다

朝鮮產綿布 一躍六倍輸出

海外進出顯著

財務局調査에依한 今年一月부터 五月까지의 朝鮮產綿布輸出額은 七百九萬七千三百卅五圓으로 前年同期의 百卅五萬二千百七十七圓에比하야 約六倍의飛躍이다 輸出地中 主要한것은 關東廳에 四百十萬九千六百七十八圓 滿洲에 二百六十九萬二百七十四圓으로 智利、도미니카、케니야、濠羅、아르젠틴等 南米、阿洲方面에도 進出이顯著하다한다

春繭第二回豫想

農林局發表 六月十日現在의春繭은 各道가 모두 發育이良好하야 桑葉은 平安南道의多少不足인外는 其他各道는過不足이업는터이다 收繭豫想額은 千四百五十萬三千七百四十五瓩(四十五萬五千十九石)으로 前年春蠶收繭額에比하면 三十七萬九千六百九十五瓩(一萬一千九百十一石)即二分六厘의 減少인바 地方別豫想은如左하다(單位瓩)(△은減)

	收繭豫想	前年比較
京畿	八六八、六六二	△四一、三一五
忠北	八四三、九七〇	△八〇、七四
忠南	一、〇五五、八〇四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上海銀行增資決行

朝銀의 上海銀行增資는 大藏省의 爲替管理에依한 資金送金을 傳하고잇스나 右는 全然言明을避하고 朝銀의 增資金現送은 京城本店으로부터할것으로此認可는 總督府에잇서서 이미 三月末에 認可를하엿더 그런데增資決行은 總會의 增資決議에依하야 七月에 行할計劃으로 其關係上 遲延하고잇는것이라한다

朝紡原州操綿工場

朝鮮紡績에서는 今回江原道原州에 操綿工場을 建設키로되어 十八日工場建築入札에 附하얏는데 江原道의 在來棉을 原料棉으로서 操綿하리라한다

林業開發會社 今月末制令公布

朝鮮林業開發會社 資本金二千萬圓制令案은 矢島農林局長이渡東하야 法制局과 折衝한結果、大體諒解를 得키에 至하얏슴으로 二十四、五日頃歸任하야 今月末 右制令을 公布한後 直時設立準備委員會를 開하고 七月上旬 第一回創立委員會를 開催、創立에關한 諸事項을 決定한後九月에는創立總會를開하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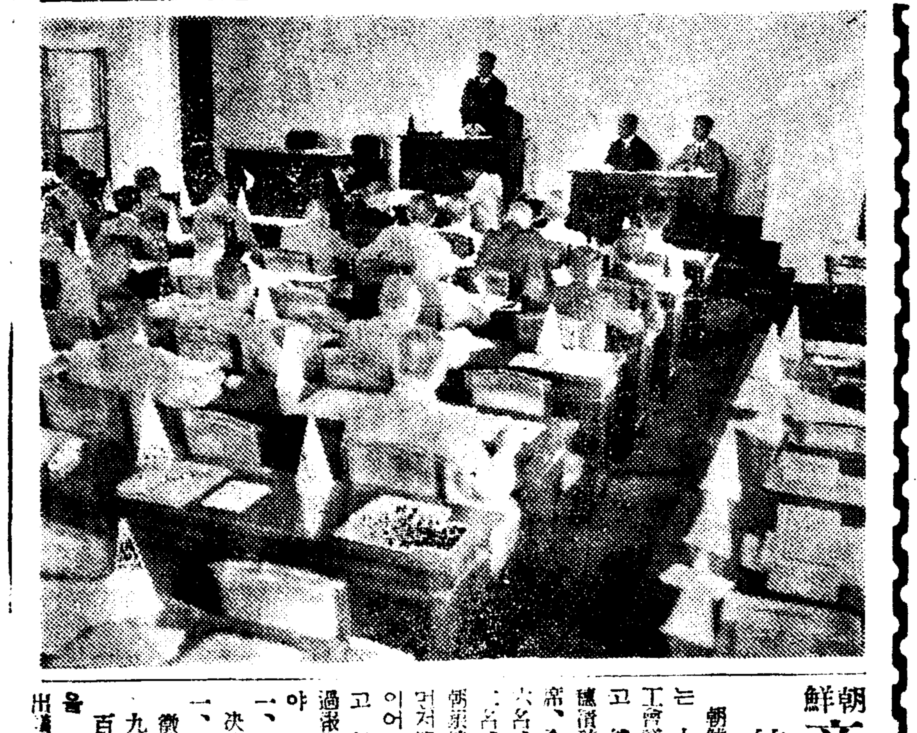
寸鐵

○東京의更生案決定、往事는莫論、今後의明朗을期待하자!。

○商議總會開幕、中小商工問題가 이번뿐아니지만 當局에陳情만말고 商議로서 自力으로方策이업슬가?。

○殖銀社債에 依하던 產業資金調達이困難、朝銀의 保證準備擴張을 特議에 上程할일。

○加藤朝銀總裁 이런일이야말로 정말 버티어볼일。



朝鮮商議總會 總監臨席開幕

朝鮮商工會議所第六回定期總會는 十八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總督府로부터大野政務總監、穗積殖產局長、碓井商工課長等臨席、全朝鮮各商議로부터 議員十六名、職員十五名、有志議員三十二名、計六十餘名 特別議員加藤朝銀頭取等出席、먼저賀田朝鮮商議會頭의開會辭에이어 大野政務總監의 告辭가잇고 伊藤理事로부터 事務의 經過報告가잇슨後議案審議에 移하야

一、昭和十一年度事業報告及收支決算의件

一、昭和十二年度經費豫算及賦課徵收方法의件(豫算總額一萬四千九百一圓으로 比前年度四千二百三十圓增)

을 可決하고이어서 各會議所提出議案審議에 入하얏는데 正午午餐으로 休憩하고 記念撮影이잇슨後 午後一時부터 再開、所定議案十五、緊急提案二의 審議를 行하얏다 (寫眞은總會場)

產業五個年計畫建議

緊急提案으로

現內閣의 日滿朝鮮을 通한產業五個年計畫에 順應하야 總督府도 朝鮮產業五個年計畫의 樹立에 進出키로된모양인데 十八日開催한 朝鮮商議總會에서도 이에呼應하야 朝鮮商議常議員會의 提案으로서

一、朝鮮產業五個年計畫樹立에關한建議

를緊急提案으로 하기로되엇는바 그提唱은 如左하다

日本經濟의 實勢와 現下의 時局重大性에 鑑하야 政府는 速히 朝鮮產業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資源의 涵養과 產業의 開發을促하고 國力의充實과 國運의 發展에 寄키를要望함

株式 突込後에下澁

今日의市勢【十八日】

前場不勢

昨後場氣朋模樣이어되엿後의 氣配는 거의不變이엇스나 今朝入電의 紐育株式은 三弗餘反撥을 爲始하야 諸株一齊反撥을 示하고 米株도 少高이엇스므로 人氣는反强하야 寄付는 反撥裡에 鐘新一圓十錢高 東新三十錢高로 始場한後保合을 繼續하엿는데 引際에至하야 東京市場이 崩落을演한것을 보고 人氣俄然軟化하야 鐘新은 二百七十圓零割을 演出하고 東新도다시 百五十一圓七의 低價를 보엿스며 大新은 九十圓三十錢에 賣叩되어 不勢裡에前場을 마치엇다

後場續落

前場의不勢를이어 大新九十圓零割 東新四十錢低 鐘新六十錢反高로 區區裡에 寄付한後 東阪이다시 低價를보고 低移하엿스나 그後現함에따라 低價圈을示下支되을보고少堅裡에大引되엿다

賣追擊은警戒

오래保合에嫌氣가생겨 昨後場의氣崩이되엿後 外電高로寄付高는 되도러 賣場을 提供한形이되어 前場引際의 崩落을演出하야 形勢는 多少惡化된形과도갓다。어에는 라사工業의繼續暴落、船舶株의軟調가 또한影響한것도事實이다。그러나 嫌氣投에依한 이突込場面은 여러가지意味로注目치안흘수업다。오래保合이下放하

(六月十五日) 京城府永登浦町五五〇의一 廣承祖◆京城府本町四丁目五 스파로라運動具店金亨泰 南方茂◆運動具店 京城府壽松

船舶株等低落

獨伊兩國이 다시不干涉委員會와國際監視隊에 復歸하게되고蘇聯의動搖로 西班牙內亂도終焉에 가까워다고보아 歐洲의危機는緩和되엇스므로船舶株는 [illegible]

經濟의大勢와 米價의今後觀

政府所有米와 今後政策一考

國債 買物出現 少高

期米 伸惱이나 堅强

朝取期米取組內容

正米 閑散裡에 軟調

今日財界 十八日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銀行券

手形交換·金利

金銀價

對外爲替

鰯油粕·麥粉

仁川正米

京城正米

大阪市中在米高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仁川雜穀

京城雜穀

大阪正米

綿絲

京城綿糸布市勢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株式

期米

[illegible]	[illegible]

期米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一九六一 五六一二 三九六

金·銀 石金 土金 分析賣買 岩崎商店 金山府幸町二ノ 電話 一五五

金白·銀金 杉山商會

期米 康益夏

金·銀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 3939 1572 振替京城234 代金引換販賣酬應